



0.1 SEC.

0.2 SEC.

0.3 SEC.

0.4 SEC.

눈으로 보는 그 이상의 놀라운
S AMOLED WQHD

믿기지 않는 놀라운 속도를 이제, 당신 손 안에

지금껏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속도
뮤직비디오 한 편을 0.4초 만에 다운로드 받음 (10MB 기준)
LTE보다 3배 빠른 세계 최초 광대역 LTE-A 폰

• 당사 실측 최고치(217Mbps) 기준이며, 실제 다운로드 속도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제품 화면의 내용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상기 이미지는 실제 제품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새로운 감각
Samsung
GALAXY S5 광대역 LTE-A

• 광대역 LTE-A • S AMOLED WQHD • 방수/방진 • 퀵 오토포커스 • 1600만 화소 카메라 • 심박수 측정센서

삼성전자 S'골드러시 갤럭시 S5 광대역 LTE-A 기프트 삼성 갤럭시 사용자만을 위한 프리미엄 서비스와 콘텐츠 제공
자세한 내용은 www.samsung.com/sec 를 참조하세요



세계한인 전문채널

www.worldkorean.net

W4~5 Korea

'K-컬처 서포터즈'
대항해 알리는
팡파르!



W7 Ghana-Accra

임도재 회장

"재외국민보호법 통과
액션플랜 마련 중"



W11 USA-Sunnyvale

최미영

신임 NAKS 회장

"영문판 한국역사교재
만들겁니다"



C4 China-Shenyang

김관식 회장

"신안민속촌은 중국 유일한
한국예절교육장"



C12 China-Dandong

이희행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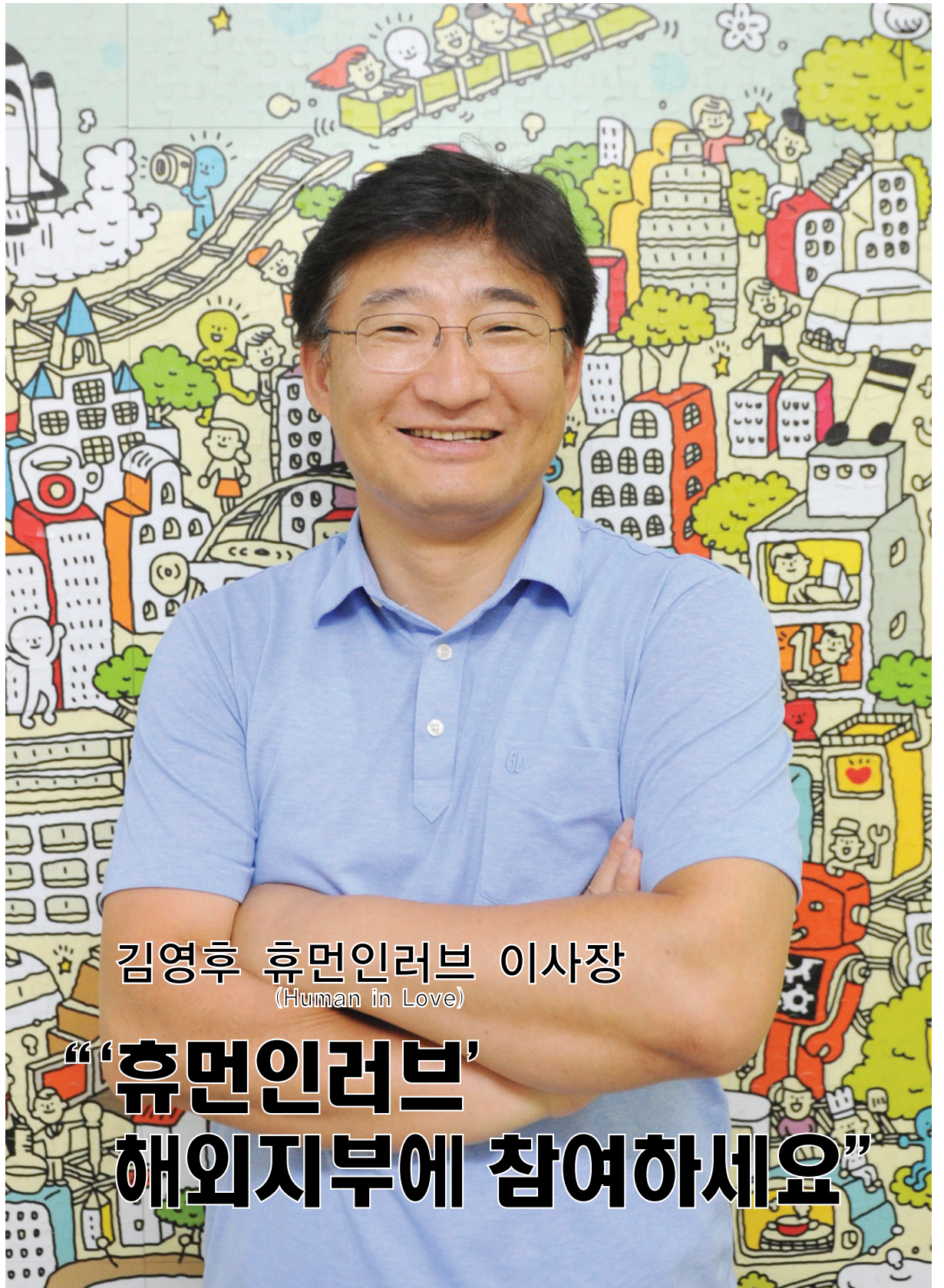
"남북한 민간교류는
계속돼야"



worldKorean

2014년 7월 24일 목요일 <제95호>

월드코리안신문 1부=1천원



김영후 휴먼인러브 이사장
(Human in Love)

“‘휴먼인러브’
해외지부에 참여하세요”

스페셜리포트

C1~C16... 월드코리안신문 차이나판

C4... [현장] 제13회 심양한국주간 민족 역사의 전통 흐르는 서탑서 개막

한류를 창조하며 꿈, 사랑, 평화를 이루는

대한민국 종이접기강사

KOREA JONGIE JUPGI GANGSA



- ★ 종이접기로 과학기술!
- ★ 종이접기로 인격을!
- ★ 종이접기로 예술!
- ★ 종이접기로 평화!
- ★ 종이문화로 세계화!

제정된 종이문화재단
세계 종이접기연합
www.paperculture.or.kr

월드코리안
메일링서비스

세계한인리더 5만명에게
이메일 서비스 해 드립니다.

wk@worldkorean.net 문의: 82-2-6160-5352

7월 8월 9월

한인사회 주요 행사 일정표

- ◇ K-POP World Festival
캄보디아 지역예선
-일시: 7월25일
-장소: 캄보디아 왕립프놈펜대학 내 CKCC
- ◇ 사천성한국인(상)회
사천성 교민을 위한 송이축제
-일시: 7월26일
-장소: 중국 성도 대세계상업광장
- ◇ 말레이시아한인회,
'2014 청소년 음악제'
-일시: 7월26일
-장소: 말레이시아 미드밸리 전시장
- ◇ 2014 미주뷰티 박람회
-일시: 7월26일
-장소: 미국 뉴저지 Meadowland Exposition Center
- ◇ 재라오스한인회
제34회 코라오배 한인회 골프대회
-일시: 7월27일
-장소: 라오스 컨츄리클럽
- ◇ 이와테 민단본부, 어린이 학교
-일시: 7월31일~8월2일
-장소: 일본 츠도이노 모리
- ◇ 워싱턴한인무역협회,
차세대 무역스쿨
-일시: 7월31일~8월2일
-장소: 타이슨스 코너 매리엇호텔
- ◇ 싱가포르한국상공회의소
2014 상-말 코참 친선교류회
-일시: 8월1일~2일
-장소: 말레이시아 조호바루 Le Grandeur 호텔
- ◇ 국제청년센터, 유학생 여름캠프
-일시: 8월1일~3일
-장소: 충남 홍성 문당리
-내용: 국내 대학생-유학생 네트워크
- ◇ 재미과기협, 샌프란시스코 과학자대회
-일시: 8월6일~9일
-장소: 미국 샌프란시스코
- ◇ 재일민단 동포학생 모국방문 잼버리
-주최: 재일민단
-일시: 8월12일~16일

- ◇ 연변한국인회, 노인절 행사
-일시: 8월15일
-내용: 300명의 어르신들을 초청, 식사대접
- ◇ 쿠바 한인후손 문화원 개원식
-일시: 8월15일
-주최: 민주평통 중미·카리브협의회
- ◇ 첸나이한인회, 자선바자회
-일시: 8월16일
-장소: 인도 첸나이 마일라폴 ST RHOMAS SCHOOL
- ◇ 캐나다 골프협회, 2014년 오픈 대회
-일시: 8월16일
-장소: 캐나다 온타리오주 Angus glen
- ◇ 캐나다한국학교총연합회,
제4차 학술대회
-일시: 8월22일~24일
-장소: 캐나다 온타리오주 EXECUTIVE PLAZA
- ◇ 아일랜드한인회 가족의 날 행사
-일시: 8월23일
-장소: 아일랜드 Methodist Centenary Church
Wesley House Leeson Park
- ◇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대회
-일시: 8월26일~29일
-장소: 경상북도 구미
- ◇ 주인도네시아한국대사관,
한국어교육자 세미나
-일시: 8월27일
-장소: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한국문화원
- ◇ 2014 연길·두만강지역
국제투자무역박람회
-일시: 8월27일~31일
-장소: 중국 연길시 국제컨벤션센터
-주최: 인민정부, 길림성 상무청,
길림성 무역추진위원회



- ◇ 플로리다 한인연합 체육대회
-일시: 9월1일
-장소: 미국 플로리다 잭슨빌
- ◇ 공주대, 재외동포 모국수학
-일시: 9월1일부터 3개월
-장소: 공주대학교 한민족교육문화원

- ◇ 재일민단 대학생 잼버리
-일시: 9월5일~7일
-주최: 재일민단
- ◇ 버지니아한인회,
'2014 취업박람회'
-일시: 9월13일
- ◇ LA한인축제
-일시: 9월18일~21일
-장소: 미국 LA 서울국제공원



- ◇ 싱가포르한인회, 한인 한마당 체육대회
-일시: 9월20일
- ◇ 2014 세계한상대회
-일시: 9월24일~26일
-장소: 부산 벡스코



- ◇ 재외한인학회 2014 추계학술회의
-일시: 9월26일
-장소: 서울 연세대학교
- ◇ 월드옥타 세계한인경제인대회
-일시: 9월29일~10월2일
-장소: 여수

광고 지면안내

W-카드	W8
연길투자박람회	C6
선녀산 성제미래성	C8~9
편강한의원	C11
세계한상대회	C16
참포도나무병원	W13
오라클피부과	W14
삼성전자	W16

“한글학교는 한글, 우리 문화와 역사를 사랑해요~”

재외동포재단, 세계 한글학교 교사 초청 연수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한글학교 교사들이 한국어 교수법을 배우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모국을 방문했다.

재외동포재단(이사장 조규형)이 주최하는 ‘2014 재외한글학교 교사 초청연수’가 7월11일부터 18일까지 7박 8일간, 총 59개국 188명의 재외한글학교 교사 및 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 송도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와 파주, 서울을 오가며 진행됐다.

쉐라톤 인천호텔에서 개회식이 열린 첫날 11일에는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를 집필한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이 ‘한국문화의 뿌리와 아이덴티티’라는 주제로 기

조강연을 펼쳤다.

또, 연수 기간 동안 참가자들은 현직 유·초·중등교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강사진들로부터 NIE(Newspaper in Education, 신문 활용 교육), 교구제작, 강의 시연 등 현지 한글학교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학년별 집중 강의와 한국어 교육 전문성 함양에 필수적인 문법교육론, 어문규범, 어휘교육론 등의 한국어 교수법을 함께 교육 받았다.

이번 연수의 또 다른 특징으로, 해외에서 더욱 심각한 ‘역사 왜곡 로비전’에 노출돼 있는 재외동포 학생들에게 바른 역사인식

을 심어 줄 수 있도록 ‘독도, 동해, 한국사, 통일을 바르게 가르치는 방법’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 구체적 프로그램으로 사이버 외교사절단(VANK) 박기태 단장, 한국홍보전문가 서경덕 교수,

EBS의 역사과목 스타강사 최태성 교사 등 각계 전문가의 특강, 실습과 더불어 현장 학습 등을 진행했다.

7월14일 VANK박기태 단장의 독도바로알리기 강연 후 연수 참가 교사들이 독도에 보내는 응원 메시지를 작성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16일 오전에는 서울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태극기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했다.

한편,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 교육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14 조선어교원 초청연수’를 7월 16일부터 2주간 한국외국어대학교 용인 글로벌캠퍼스에서 개최했다.

〈고영민 기자〉



리더스 다이제스트



반기문 사무총장 “팔레스타인 공습 멈춰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7월20일 카타르 도하에서 칼리드 아이티야 카타르 외무장관과 회동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대한 공습을 지속하면서 인명 및 재산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반 총장은 “무고한 희생자들이 생기고 있다”며 이스라엘에 자제를 촉구했다.



안홍준 위원장 심양한국주간 개막식 참석

안홍준 국회 외교통상위원장이 7월18일 중국 심양시 조선족제6중학교에서 열린 심양한국주간 개막식에 참석했다. 심양한국주간은 2002년 시작돼 올해로 13회를 맞았다. 500여 명이 참석한 개막식에는 안홍기·문대성 의원 등 우리정부 측 인사들도 자리를 함께 했다.



김성곤 의원 “재외동포 관련 예산 확보에 박차”

김성곤 국회의원이 내년도 재외동포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7월9일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기재부 예산실장 및 실무과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2015년부터 국제교류기금 중단에 따른 재외동포재단 예산 보조 중단 문제 등을 지적하고 동 예산 편성을 적극 요청했다.



원유철 의원 평택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 방문

새누리당 원유철(평택갑) 의원은 15일 평택 팽성읍의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 건설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현장에는 주요 시설인 주한미군사령부, 미8군 사령부, UN군 사령부, 한국군 지원사령부 등이 건설중이며, 2016년도까지 이전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했다.

고려인 동포들의 거침없는 대륙횡단 순항중

한인 러시아 이주 150주년 기념... 7월17일 키르기스스탄 도착

자동차를 타고 러시아와 중앙아시아를 거쳐 남북한을 종주하고자 하는 고려인 동포들의 거침없는 질주가 계속되고 있다.

한인 러시아 이주 150주년을 기념해 러시아지역에 살고 있는 고려인들이 자동차로 러시아대륙을 출발, 강제이주의 한이 서린 중앙아시아 이주 경로를 따라 금단지역인 북한군사분계선을 넘어 부산에 도착하는 러시아-남북한 종주 자동차행렬이 7월17일 키르기스스탄에 도착했다.

민주평통 키르기스지회(회장 전상중)와 고려인협회(회장 최발레리)는 이날 오전 10시 김창규 키르기스 주재 대사를 비롯한 100여명의 동포들과 함께 비슈케크 중앙광장에서 환영행사를

가졌다고 전했다.

이들 고려인 60여 명은 자동차 7대를 이용해 7월7일 러시아 모스크바를 출발, 오는 8월25일까지 1만5천km 대륙을 종단할 예정이다. 행사 관계자는 “한때 북한 당국이 군사분계선 통과 불허 입장을 밝히면서 난항을 겪는 듯 했지만, 자동차 랠리 팀의 통과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다시 제시하면서 예정대로 행사가 진행

됐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종주 랠리 참가자들은 모스크바를 시작으로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 카자흐스탄의 알마티, 노보시비르스크를 거쳐 러시아 동부 블라디보스토크를 경유해, 평양과 군사분계선(MDL) 통과 후 대한민국 서울에 이어 마지막 종착지 부산에서 여정을 마칠 계획이다.

〈고영민 기자〉



미주총연 서남부연합회장 이·취임식, 8월1~3일

미주총연 서남부연합회 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이 8월1일부터 3일까지 미국 새크라멘토에서 개최된다. 1일 박승걸 서남부

연합회 신임회장의 자택에서 환영만찬이, 2일 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이 진행된다.

미주총연 서남부연합회는 미국

서남부지역 8개주 35개 한인회전, 현직 한인회장들의 모임이다. 이번에 취임하는 박승걸 회장은 제21대 새크라멘토한인회장을 역임했다.



‘K-컬처 서포터즈’ 대항해 알리는 팡파르!

7월15일, ‘쇼케이스 디너’ 행사 통해 한류 세계화 나서
임도재 회장 “보다 멀리 갈 수 있도록 한인사회도 함께할 것”



대한민국 문화를 세계 곳곳에 전파하고자 하는 ‘K-컬처 서포터즈’의 대항해를 알리는 팡파르가 우렁차게 울려 퍼졌다.

K-컬처 서포터즈(진행 공동대표: 이종환 월드코리아신문 발행인, 정은숙/Liz Eunsook Loiland 서울오케스트라 운영위원장)는 7월15일 오후 6시부터 3시간 동안 서울 강남 스칼라티움에서 ‘K-컬처 서포터즈 쇼케이스 디너(Show Case Dinner)’ 행사를 열고, 한류문화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종환 월드코리아신문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오늘 행사는 ‘K-컬처 서포터즈’의 세계 진출을 향한 출정식이라고 볼 수 있다”며, “중국, 일본 등을 시작으로



세계 각국에서 공연 및 전시회 등을 열어 우리 문화를 세계인들에게 전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출범식 진행을 맡아 일반인들



도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퓨전 스타일의 무대를 마련한 정은숙 공동대표도 인사말에서 “지구촌 가족들과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의 문화를 상호교류하고자

K-컬처 서포터즈를 출범시켰다”며, “그 시작은 미약할 수 있으나 뜨거운 열정과 끊임없는 노력을 한다면 모두가 감동할 수 있는 큰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





라고 강조했다.

K-컬처 창립을 축하하고자 참석한 이경재 H2O품앗이운동본부 이사장(전 방송통신위원장은) “한류 세계화에 힘을 보태고자 하는 K-컬처 서포터즈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해외동포들과 동포언론이 해야 할 가장 필요한 일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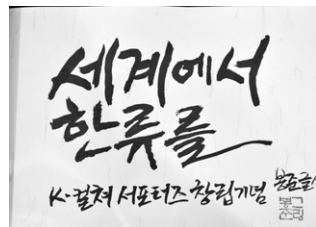
이경옥 동구바이오제약 회장은 “한류가 세계인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K-컬처 서포터즈의 발족은 정말 시기적절한 탁월한 선택이라 생각한다”며, “세계 각지의 다양한 문화를 서로 교류하며 한국문화를 더욱 확장시키고자 하는 K-컬처 서포터즈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아프리카 57개국, 중동 16개국 등 73개국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임도재 아프리카·중동한인회총연합회장(2014세계한인회장대회 공동의장)은 “아프리카 부족 속담 중에 ‘빨리 가려면 혼자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다”며, “한국문화에 애정을 갖고 있는 모든 분들이 K-컬처 서포터즈가 보다 멀리 갈 수 있도록 오랫동안 함께 하길 바라고, 한인사회도 한류 확산에 나선 K-서포터즈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고 약속했다.

이날 쇼케이스 첫 공연에 나선 권성순 소프라노는 “K-컬처는 ‘사랑’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인류애를 통해 세계 여러 나라에 우리 문화를 보급하고, 그 문화를 통해 현지인들이 자기만의 문화로 재창조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문화 나눔이 실현되는 데에 K-컬처 서포터즈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성순 소프라노와 함께 공연을 펼친 김철호 테너(삼육대학교 교수, 구리시 오페라단장)는 “K-컬처는 ‘소통’이다”며, “문화와 예술을 통해 언어와 민족, 인종을 넘어 서로 소통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세계 최초로 대학에 마술학과



를 설립한 장본인이며, 이날 공연에서 신통방통한 마술을 선보여 관객들로부터 뜨거운 환호를 받은 함현진 마술사도 “K-컬처 서포터즈의 시작을 축하하기 위해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이 보다 많은 세계인들로부터 사랑받는 K-컬처를 만드시길 바란다”며, “문화강국으로 가는 축복의 사다리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전했다.

이외에도 이날 쇼케이스에서는 도예가 이호영, 화백 김봉준 씨가 각자의 작품을 선보였고 한·중 친선협회 이사, 세종의 향기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트럼펫 연주가 캔디 씨가 ‘베사메무초’, ‘체리핑크 맘보’에 이어 앵콜곡으로 ‘한밤의 트럼펫’을 연주했다. 또, 색소폰 연주자 강기만 씨가 ‘Liber Tango’, ‘Pirates of the Caribbean’ (캐리비안해적 OST) 등을, 클래식기타리스트 필로스(장하은·장하진)가 레드 제플린의 ‘Stairway to heaven’ 등을 연주했다. 특히 배우 양승걸 씨가 찰리 채플린 판토마임을 선보여 관객들로부터 큰 웃음을 자아냈다.

이날 쇼케이스 디너 행사에는 이경재 H2O품앗이운동본부 이사장, 이경옥 동구바이오제약 회장, 임도재 아프리카·중동한인회총연합회장(2014세계한인회장대회 공동의장), 이동관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총장, 김정남 전 청와대 사회교육문화수석, 김동훈 나눔국민운동 사무총장, 이종산 전 SK그룹 중국 본부장, 손석우 해외동포책보내기운동협의회 이사장, H2O품앗이운동본부 장문섭 부이사장, 전대열 한국정치평론가협회 회장, 김부진 전 나이지리아한인회장, CH포럼 관계자들, 장광식 국제청소년예술교류단장 등 15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또한, 임호성 사우디아라비아

서부한인회장, 조홍선 나이지리아한인회장, 김진의 남아프리카공화국한인회장, 김점배 오만한인회장, 노영혜 종이문화재단 이사장, 이말재 카타르한인회장, 이상철 중국화동연합회장, 양창영 국회의원, 이동관 서울문화예술대학총장, 임도재 아프리카중동한인회총연합회장 등이 화환을 보내와 K-컬처 서포터즈 창립을 축하했다.

〈고영민 기자〉



인생에서 또 하나의 계단 위를 오르다!

아트스페이스 '스칼라티움'은 파티, 웨딩, 전시, 공연의 특별한 공간입니다.

제 4, 5호점 상암월드컵점, 수원영통점 GRAND OPEN !!

전 지점 예약접수중 1899 5600

웨딩홀 사업부

강남점 |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79길 72 | 02 538 3300
 마포상암월드컵점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240 서울월드컵경기장 2F | 02 306 3600
 수원영통점 |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612 | 031 204 0955
 안양평촌지점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217길 45 7, 8층 | 031 386 5400
 구리남양주지점 | 경기도 구리시 건원대로 44 8, 9층 | 031 552 9000

드레스 사업부

NY브라이덜필리파 |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105길 | 02 511 2526
 헤리티크더뉴욕 |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602 3층

옥타 차세대들, 세계시장 개척 위한 무한도전 나서

차세대 도전 프로그램 통해 모국 중소기업 해외 판로개척에 나서기도

국내 중소기업과 해외 청년기업인들이 손을 잡고 세계시장 판로 개척을 위한 무한도전에 나섰다.

세계한인무역협회(World-OKTA, 회장 김우재)가 재외동포청년기업인 및 창업준비자들을 대상으로 2003년부터 매년 시행해오고 있는 차세대무역스쿨 모국방문교육이 7월16일 경기도 양평 코바코연수원에서 개최됐다.

세계 23개국 52개 도시에서 해외 청년기업인 90명을 초청해 22일까지 6박7일간 진행한 이번 차세대 무역스쿨은 올해로 12번째를 맞이했다. 한민족정체성 고양 및 무역실무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한민족 경제사관학교의 역할을 해오고 있는 차세대무역스쿨은 현재까지 1만 3천500여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이날 오후 열린 입교식에서 김우재 회장은 “이번 차세대무역스쿨 모국방문교육



에서는 재외동포 청년들을 청년기업인으로 양성하기 위한 알찬 프로그램들을 마련했으며, 특히 세계시장에 도전하고자 하는 모국의 중소기업과의 연결고리를 만드는데 집중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회장은 “체계적인 리더교육을 통해 재외동포 차세대 기업인들이 세계를 누비는 ‘인재한류’를 실현하기 위해 협회의 모든 역량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월드옥타에 따르면, 첫날 입교식을 거쳐 2일차부터 본격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실시됐다. 청년의 도전정신, 한민족 정체성

교육, 글로벌 리더십 등을 주제로 하는 강의가 진행됐으며, 특히 도전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유망 아이템들을 알아보는 시간도 가졌다.

월드옥타 측은 “차세대 도전프로그램은 재외동포경제단체라는 특성을 살려 발전시킨 특화된 경제인 양성 특화 프로그램”이라며, “국내 유망 중소기업의 아이템을 대상으로 해외수출 또는 창업계획 수립과제를 조별로 부여, 계획안의 실현가능성에 따라 중소기업과 협의 후 인센티브 제공 또는 해외진출 등의 지원방안을 모색

하는 프로그램이다”고 설명했다.

도전프로그램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정규 프로그램으로 확대·개편해 16개국 39개 도시에서 개최되는 현지 차세대무역스쿨 공통교육과정으로 도입했다. 대표적 모범사례로 휴대용 디제이기를 제작·판매하는 JD사운드는 작년 도전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으로 차세대무역스쿨 네트워크를 통해 일본, 미국 시장 진출에 성공했고, 현재 추가로 유럽, 남미, 동남아시아 시장으로의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

3일차에는 정래권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ESCAP) 국장으로 부터 국제사회에서의 사업가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 무역 및 기업인으로서의 자질 향상을 위한 강의, 4일차에는 기업인들을 초청해 글로벌 청년창업에 대한 실무와 글로벌 창업 성공스토리 등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5일차에는 글로벌 창업에 성공한 청년기업가 초청 강의와 중소기업아이템의 글로벌 창업 및 세계 시장진출을 위한 사업계획에 대한 프로젝트 발표가 있었으며, 6일차에는 양평에 있는 군부대를 방문, 병영체험을 실시하고 수료식을 통해 전체 프로그램이 마무리됐다.

한편, 이번 차세대무역스쿨에 함께 참여하는 성남산업진흥재단의 이용철 대표이사는 “차세대무역스쿨 네트워크를 활용한 관내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프로그램은 벤처기업이 많은 우리 성남시에 글로벌 마인드를 심어주는 효과적인 사업”이라며, “재외동포 청년기업인과 해외시장개척 활동에 동참한 44개사 관내 중소기업 대표들에게 감사드리며, 좋은 성과를 거두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영민 기자〉

www.worldkorean.net



서랍 속의 묵은 안경이
아프리카의 눈(eye, 眼)을 살립니다.

월드크리안 맑은 눈 아프리카 봉사단
Africa

안경을 보내주세요

서랍 속의 묵은 안경이 아프리카의 눈을 살립니다. 아프리카는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사소한 눈 질환도 쉽게 실명으로 이어집니다. 안경을 모아 보내 아프리카 사람들의 눈을 살리는 운동입니다.

안경보내주실 곳

Address, 서울 강남구 역삼동 601-10번지 대원빌딩 201호
월드크리안 신문사
Tel. 02-6160-5352 | E-mail, wk@worldkorean.net

임도재 회장 “재외국민보호법 통과 액션플랜 마련 중”

7월8일 강남 리츠칼튼호텔서 ‘번개모임’... 현지 정세도 논의

“교민 철수령이 내렸지만 회사일 때문에 가끔 들어가야만 해요.”

임도재 아프리카중동한인회총연합회 회장이 마련한 자리에서 신연성 리비아 한인회장이 말을 꺼냈다. 리비아는 정치적 불안정으로 우리 정부가 교민들에게 철수령을 내린 상태다. 하지만 정부의 철수령을 따르기 어려운 점이 교민들에게 있다는 것이다.

“위기라는 게 또 기회라는 말도 있잖아요. 대기업들의 사업은 중단되는 등 피해가 커지만, 중소기업들의 비즈니스는 그런 가운데서 더 활발해지고 있다는 게 아이러니지요. 틈새가 있다는 것이지요.”

신연성 회장은 최근 리비아를 다녀왔다면서 “중소 비즈니스를 하는 업체들은 전보다 더 늘어났다”고 소개했다. 이날 모임은 임

도재 회장이 긴급 제안해 만들어진 아프리카중동총연의 번개모임이었다. 마침 이영규 UAE한인회장과 이말재 카타르한인회장이 귀국했다는 얘기를 듣고, 먼저 와 있던 임도재 회장이 번개를 쳤다는 것이다.

강남 리츠칼튼 호텔의 레스토랑 ‘더가든’에서 열린 이 모임에서는 최근 중동 정세에 대한 깊은 얘기들이 오갔다. 이라크 사태를 둘러싼 분석과 전망, 이라크와 사우디 등 주변국들의 대응책, 물류허브이자 중동권의 안식처 역할을 하는 두바이의 동향 등 생생한 현지 정보들이 교환됐다. 오랜 중동생활에서 체득한 지혜와 문화적 소양도 포함해 전망과 분석을 쏟아냈던 것.

특히 비즈니스를 하는 과정에서 획득한 정보들도 소개됐다. 바닷가재와 스테이크에 이태리



산 와인이 곁들여진 만찬도 일품이었다.

“재외국민보호법이 제정돼야 합니다. 중동과 아프리카지역에 있는 교민사회에서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입니다.”

임도재 회장이 아프리카중동한인회총연합회가 주력사안으로 해온 재외국민보호법 국회 통과 문제를 제기했다. 임회장은 “재중국한국인회도 재외국민보호법 문제에 큰 관심이 있다”면서, “서



로 방점을 찍는 부분은 다르지만, 큰 틀에서 협력해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이에 “10월초 세계한인회장대회 때 구체적인 액션을 준비하자”고 이말재 카타르한인회장이 거들었다. 세계 각지의 한인회장들한테 재외국민보호법 제정을 위한 필요성을 역설하고 동참할 것을 호소하자는 얘기가 나왔다. 이영규 UAE한인회장은 “그때 국회 앞에 가서 시위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보다 강한 액션플랜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임도재 회장은 “9월까지 재외국민보호법에 대한 여론 환기와 추후 액션플랜을 마련하겠다”면서 “10월초 세계한인회장대회에서 구체적인 액션에 들어가자”고 말했다. 이날 모임은 커피 피습으로 자리를 옮겨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이종환 기자〉

재일민단, 9월 재일대학생 잼버리 개최

“재일동포 학생과 한국인 유학생 콜라보레이션”

재일동포 대학생과 한국인 유학생이 함께 어울리는 행사가 일본 동경에서 열린다. 재일민단은 “9월5일부터 2박3일간 ‘재일대학생 잼버리 2014’를 일본 동경

요요기 국립올림픽 기념 청소년 종합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민단신문을 통해 밝혔다.

민단신문에 따르면, 그동안 재일대학생 잼버리 행사는 재일동

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돼왔다. 하지만 올해부터 한국인 유학생도 참가할 수 있도록 행사를 확장한다.

재일동포 변호사와 동포과학

자, 현역 동경대학 대학원생 등이 강사로 초청된다. 이들이 한국인으로 살아 온 이야기 등을 들려 줄 예정이다. 언론과 대형 광고 기획사에 취업한 학생회 OB가 참가해 취직까지의 과정과 현장에서의 업무 내용 등 체험담을 들려준다.

이밖에 볼링대회, 노래대회, 동경 스카이트리와 오다이바 등을 관광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될

다. 재일 바이올리니스트의 콘서트와 사물놀이 프로그램도 예정돼 있다. 민단은 “지금까지 별로 접점이 없었던 일본 태생의 재일동포 학생과 본국 태생의 유학생들 간의 콜라보레이션이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석호 기자〉



현지인력부 송창근 인도네시아한인상공회의소 회장

‘미스터 신발왕’ 별명...

종업원수 2만명의 KMK스포츠그룹 이끌어

“2천300개 한인기업이 진출해 100만 명의 현지인을 고용하고 있지요.” 이들 한인기업들의 친목을 도모하고 권익을 대변하는 것이 인도네시아한인상공회의소다.

그간 승은호 회장이 오래 회장직을 맡고 있다가 지난해부터 송창근 회장이 바통을 물려받았다. 인도네시아한인상공회의소는 한인경제사회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인도네시아 정관학계 다방면으로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는 게 송회장의 소개.

“인도네시아 경영자총연합회인 아핀도(APINDO)와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협력하지요.”

이 같은 네트워크를 위해 인도네시아 현지 정부가 장관과 고위공직자들을 고문으로 위촉하고, 국세 세무 노무 등 경제관련 신규법령을 한글로 번역해 배포하는 등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장기적인 리스크를 미리 감지하고 이에 대비해 예방차원의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게 인도네시아한인상공회의소의 주

된 일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신발 제조를 중심으로 한 KMK글로벌스포츠그룹을 이끌고 있는 송창근 인도네시아상공회의소 회장은 인도네시아 생활이 올해로 26년째다. 나이키와 컨버스 등 다양한 브랜드를 OEM으로 제조하는 한편 이글이라는 브랜드로 인도네시아 내수시장도 공략하고 있다. 공장 종업원 수는 무려 2만 명으로 한 개의 도시 규모다.

〈자카르타=이종환 기자〉

“인도네시아에는 한인교민수가 5만명에 이릅니다. 외국인 커뮤니티 가운데 가장 많은 수입니다.”

송창근 인도네시아한인상공회의소 회장이 인도네시아에 대해 소개를 했다. 그는 승은호 회장을 도와 7월2일부터 5일까지 자카르타에서 열린 아시아총연총회 및 동남아한상대회를 준비한 주역이다.

W CARD

해외동포VIP용

W카드에 회원으로 가입하세요

카드기능

가. 교통카드(T머니)

- 선불식카드
- 지하철, 버스, 택시에 사용
- 각종 편의점에서 결제용으로 사용
- 각 지하철 편의점에서 간편하게 충전

나. 제휴사 할인기능

- 호텔 병원 렌터카 레스토랑 미용실 등
- 제휴점 이용 시 즉시 할인



입회비 1만원

회원특전 www.worldkorean.net 참조

구매처 월드코리안신문(02-6160-5352, wk@worldkorean.net)

※50매 단위 단체구매 환영



월드코리안신문 제휴사(할인율)

■병원: 참포도나무병원(10%), 오라클피부과(10%, 전국 36개 지점), 편강한의원(10%), 이데아성형(10%) ■상조: 매방상조주식회사(10%, 토탈 및 부분 서비스) ■식당: 서초마을(20%), 산야초약식한정식(20%), 홀리차우(10%), 국수사(20%), 교태전(20%)
 ■미용실: 개(강남·명동), 박승철헤어 ■찜질방: 해모수불한증막(20%) ■꽃 배달 서비스: 월드코리안 꽃집(해외에서 국내에 주문하는 경조사 화환 우대제공금액 10만원) ■호텔: 프리마호텔, JW메리어트, 프로비스타, 더케이호텔(40%) 등 다수

제13회 심양한국주간, 민족 역사 흐르는 서탑서 개막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열려... 서탑미식 문화제, 한중 우수상품전 등 부대행사도 진행

“심양한국축제는 13년 연속 개최하는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양국 이익공동체를 구축하는 데에 기여를 했습니다.” 녹색 카펫 위에 붉은 색 단상이 세워졌다. 왕카이 심양시 부시장이 대형 단상 위에서 준비된 축사를 읽기 시작한다.

“2015년까지 양국 교역액이 3천억 달러의 목표를 달성할 것입니다. 2014년 상반기까지 심양시가 승인한 한국투자기업이 4천 400개입니다.”

왕카이 부시장은 심양시에는 98개 국가가 진출해 있는데, 한국은 2위 투자국이라고 강조했다. 심양시와 한국의 교역액은 12억 달러가 넘는다고 말했다. 7월18일 오전, 중국 심양시 서탑인근 심양시조선족제6중학교. 2002년부터 시작돼 올해 13회를 맞은 심양한국주간 개막식이 화려하게 열렸다.

심양시 정부 관계자들과 안홍중 국회의 외교통상위원장, 안종기·문대성 의원 등 우리정부 측 인사들이 참석했다. 또한 신봉섭 주심양한국총영사, 이성희 심양한국인회장, 손명식 중국 동북3성연합회장, 박영완 한국주간추진위원장, 안정락 한중문화교류원 이



사장과 지역주민 등 500여 명이 13회 행사를 축하했다. 행사가 열린 조선족제6중학교는 서탑과 가장 가까운 조선족학교. 심양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서탑은 한국문화의 중심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성희 심양한국인회장은 축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심양한국주간은 심양시정부와 주심양한국총영사관이 주최하고 심양한국인회와 심양시

화평구청부가 주관하는 행사다. 화평구는 심양에 진출한 한국인과 조선족동포들이 거주하는 코리타운 서탑이 있는 곳.

이성희 회장은 축사에서 또한 “올해 한국주간에서는 중국인들의 참여를 확대했다. 이를 통해 양국 문화교류가 증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개막식으로 22일까지 5일간 심양한국주간이 진행된다. 동

북3성 경제포럼, 치맥페스티벌, 개막식 축하공연 한복패션쇼가 이날 열렸고, 19일에는 한중문화교류원개원식, 비빔밥퍼포먼스가 열릴 예정이다. 또한 노래자랑대회, 동북3성 태권도대회, 김수희 디너쇼 등이 진행된다.

이밖에 축구대회, 골프대회, 전통혼례식, 연예인 축하공연, 김치담그기, 노래자랑 대회 등 다양한 문화, 체육 행사가 22일까지 진

행된다. 심양 서탑로에서는 제3회 서탑 미식문화제가 전날부터 시작해 행사기간 내내 진행된다. 2014 한중우수상품 전시회도 심양한국주간을 대표하는 행사. 서탑에서 약 20분 떨어져 있으며 심양시 중심부에 있는 심양과학관에서 진행된다. 심양과학관은 중국에서도 손꼽힐 만한 과학관. 2014 한국서화 사진전도 진행될 예정이다.

“심양한국주간을 개막합니다.” 사회자의 개막식 선포 전에는 락메치기 퍼포먼스가 개막식에서 진행됐다. 조선족학생들의 전통공연이 분위기를 달구었다. 한복의 대중화에 앞장선 ‘아름방’ 박미연 대표는 개막식과 이날 저녁에 열린 축하공연 때 한복패션쇼를 선보였다. 저녁 축하공연에서는 엄용수, 유진박, 한서경, 송경철 등이 출연하는 축하공연이 마련됐다.

〈심양=이석호 기자〉



민주평통 ‘북경 통일 강연회’ 8월1일

민주평통이 8월1일 북경 왕징 홀리데이인호텔에서 ‘북경 통일 강연회’를 개최한다. 2년마다 열리고 있는 이 행사에는 박찬봉 사무처장이 강사로 나서 정부 통일 정책에 대

한 강연을 할 예정이다. 또한 이희옥 성균관대 중국연구소 소장의 한반도 통일을 주제로 한 강연이 예정돼 있다.

김상순 민주평통 16기 해외 자문위원 겸 베이징협의회 통

일연구팀장은 사회를 맡는다. 권영세 주중대사의 환영사로 시작되는 강연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中 화동연합회 정기총회 안휘성 합비서 열려

이상철 회장 등 70여명 참석

재중국한국인회 화동연합회 2/4분기 정기총회가 7월4일부터 5일까지 중국 안휘성 합비 원일 힐튼호텔에서 개최됐다.

연합회에 따르면, 총회에는 이상철 화동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김인수 수석부회장, 구상찬 상해총영사, 신해진 중국한국상회 상임부회장, 상해 안태호 회장, 감음 예재기 회장, 남경 서성택 회장, 남통 원종태 회장, 양주 표인결 회장, 연운항 조형무 회장, 연성 김형대 회장, 장가항 김영민 회장, 진강 김배룡 회장, 승주 서남철 회장, 이우 한기정 회장, 항주 남경태 회장, 합비 공성문 회장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안휘성한국인회의 공성문 회장의 환영사로 시작됐다. 그는 “합비는 인구 840만 명의 도시로, 한국인들은 600~700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중 합비 한국인수는 400여 명이며 안휘성 한국인회는 2006년 설립됐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한 “안휘성 전체 한국투자자가 3억 달러이다. 2년 전부터 한국-합비 직항이 생겼다. 향후 대한항공도 항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안휘성을 소개했다.

화동연합회에 따르면 수익사



업, 차기 정기총회 개최지역 확정 등이 회의에서 논의됐고 기타 안건에서 문화공연 콘텐츠를 공유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상해 공관, 문화원이 행사팀에 대한

공지를 연합회에 제공하면 지역에서 초청을 할 수 있다는 제안도 있었다.

한편 4일에는 구상찬 상해총영사와의 간담회가 진행됐다. 구상

찬 총영사는 최근 상해에서 제1회 CSR우수기업 수상식을 실시했다면서, 중국 전체에서 이 사업이 실시되기를 희망했다.

〈고영민 기자〉

재북경한국인회, 고대의료원과 업무협약 체결

건강검진서비스, 인터넷서널 SOS서비스 등 혜택 고려대 안암병원서 건강검진·예약 진료

재북경한국인회(회장 이숙순)가 고려대학교 의료원(의무부총장 겸 원장 김우경)과 교민 의료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숙순 재북경한국인회 회장은 “북경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의 건

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15일 고려대학교 의료원과 교민 의료지원 업무협약 체결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의료 지원 업무협약에 따라 교민들은 건강 검진 서비스와 인터넷서널 SOS서비

스, 무료 진료 예약 서비스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먼저, 재북경한국인회를 통해서 할인된 가격으로 건강 검진 서비스를 예약할 수 있으며, 고려대학교 의료원에서 효율적인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건강검진 및 예약 진료 장소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5가)이다.

100여 가지 기본 검사를 포함한 기본정밀검진 A타입과 B타입은 각각 712,000원과 952,000원에, 정밀종합검진과 뇌혈관정밀 및 암정밀검진은 113만6천원과 196만원의 우대가격으로 제공된다.

또 교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정해진 시간 안에 최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인터

내셔널 SOS 서비스를 통해 최상의 긴급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재북경한국인회를 통해 예약하면 진료의뢰서가 없어도 고려대학교 병원에서 편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에 관한 문의나 건강검진 서비스 신청, 무료 진료 예약은 재북경한국인회 사무국(86-10-5166-5144, koreansobj@naver.com)으로 하면 된다.

〈이호근 기자〉



현지인터뷰

김기식 동전의희망 본부장

“가난한 중국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해요”

“중국의 가난한 농촌 사람들이 도시로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김기식 동전의희망본부장이 이렇게 말했다. 농촌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쉽게 도시로 와 중국 각 도시가 팽창하는 것으로 생각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농촌 사람들이 도시로 올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가난의 대물림이 이어진다고 말

했다.

“농촌인구 이탈을 막고 도시인구가 지나치게 느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이죠. 하지만 중국 농촌가정들에게는 가난에서 벗어날 희망이 없는 것이죠.”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자신들이 공부를 잘해 대도시에서 대학을 다니고 부모를 초청하면 된다는 것. 가난한 중국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말이다.

“돈이 없어 학비를 못 내고, 급식비가 없어 하루에 한끼만 먹는 중국 학생들을 보았을 때 가슴이 아팠어요.”

7월17일 저녁 황고구 한국신성 26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만난 김기식 동전의희망 본부장. 그는 동전의희망은 2010년 발족했고 매달 70여 명의 중국 학생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전의희망 전신은 2004년에 구성된 은혜이슬 봉사단이었습니다. 급식을 못 받는 중국학생들을 돕기 위해 한국 학부모들이 모였던 것이었죠.” 이후 이 운동에 유학생들과 일반인들이 참여하기 시작했고 2010년에는 동전

의희망분부를 출범시켰다. 그리고 4만개의 저금통을 만들어 중국학생들을 돕는 캠페인을 벌였다. 단순히 학비만을 지원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암컷 수컷 돼지 2마리 씩을 농촌가정에 주기도 했다.

“우리가 지원했을 때 초등학생이었던 아이가 대학에 갔어요. 한 학생은 좋은 직장에 취업했다고 감사편지를 보내왔어요.” 김기식 본부장은 요녕성 중의대학을 졸업했지만 봉사활동에 전념하기 위해 풀타임 직업을 갖지 않는다고 했다. 침과 뜸을 무료로 해 주는 봉사도 한다.

“얼마 전 우리가 지원하는 학생들의 부모들에게 합동결혼식을 올려 주었어요. 돈이 없어 결혼



식을 하지 못했던 거죠. 15 가정이 한복을 입고 결혼식을 가졌어요.” 동전의희망은 함께 참여하는 운동이라고 김 본부장은 강조했다. 한달에 300위안만 지원하면 한 학생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 그는 2004년부터 지금까지 이 일을 해 오고 있다.

“남들을 돕겠다는 마음이 중요해요. 매일 돼지 저금통을 바라보면서 힘들게 생활하는 학생들을 생각하게 되죠. 이런 봉사활동으로 중국과 한국 양국이 훨씬 가까워질 것이라고 믿어요.”

〈심양=이석호 기자〉

worldKorean 차이나판

발행처 재중국한국인회 · 월드코리아신문

발행인 황찬식 · 이종환 편집인 이종환 편집국장 이석호

본사 中國 北京市朝陽區望京麒麟社 3呼樓 1505(1001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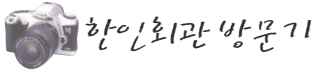
전화 86-10) 6478-9525~6

팩스 86-10) 6478-9529

e-mail koreansic@hanmail.net

홈페이지 www.koreansic.org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십시일반 성금으로 500평 규모 한인회관 설립



이희행 회장 “단동은 가장 모범적인 한인사회”

7월14일 정오. 중국 단동시내의 한국성에 있는 3층짜리 건물입구로 들어서자, 깨끗하게 단장된 안내데스크가 외부인을 맞는다. 옆으로 난 계단을 타고 2층에 오르면 금빛 ‘핸드 프린팅’들이 한쪽 벽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다. 유명 영화배우들이나 하는 줄 알았는데, 핸드 프린팅의 주인공은 이규형 주중한국대사, 김정수 재외동포재단 기획이사, 조백상 심양총영사, 김정태 SBS 예술단장 등 13인이다.

계단을 한 층 더 올라가면 더 놀랍다. 최신식 한국문화원 강당, 진열대와 테이블이 놓인 단동한글학교가 있다. 3층 건물을 통째로 한인회관으로 쓰고 있는 이렇게 역세계 ‘운 좋은’ 한인회가 있다니...

2층으로 내려와 한인회관으로 들어가니 강훈연, 오인수, 윤달생, 성구대 회장 등

역대 단동한국인회장의 사진이 자랑스럽게 걸려 있다.

“2012년 초에 한인회관 설립 모금운동을 벌여, 그해 8월에 우리들의 회관을 갖게 되었어요.”

이희행 단동한국인회장이 이렇게 말하며 한인회관으로 안내했다. 한인회관은 단동시내 동방명호 맞은 편 아파트단지인 ‘한국성’에 위치해 있다. 동방명호와 한국성은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곳. 단동의 한인타운이나 마찬가지다.

이날 한인회관을 방문했을 때 회장실 옆 사무실에서는 광병태 한국인회 수석부회장, 조승호 비즈니스센터장 등이 업무를 보고 있었다. 1층 안내데스크에는 전문적으로 직원이 상주해 있다. 이날 3시간 거리 심양에서 살고 있는 김영식 등

북3성연합회 전 사무총장이 한인회를 방문했다. 한국인회는 이처럼 늘 사람들로 북적인다고 했다. 많은 공관장들이 부임하면 꼭 찾는 곳이 단동한인회관이라고 했다.

“한글학교 수업도 이곳에서 진행됩니다. 크고 작은 한인회 행사가 여기서 열려요. 바둑대회 등 동호회 행사까지 합치면 정말 많은 행사가 끊이지 않고 한인회관에서 진행되지요.”

한인회관에는 100세 건강 상담센터, 다문화가족 복지센터, 실버사랑방도 설치돼 있었다. 향일문화연구소도 빼놓을 수 없는 단동한국인회의 자랑거리다.

특이한 점은 이 건물 앞에 단동한인회라는 명칭이 써 있다는 것. 별일 아닌 것 같아도, 중국에서는 민족적인 느낌을 주는 단체명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한인회는 꼭 한국인회라고 부른다.

“단동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원래는 압록강회관이라는 이름을 쓰려고 했어요. 그런데 단동의 원로들이 한인회관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자고 요청했지요.”

단동 한인사회는 짧아도 수년, 길면 수십년 동안 진행해도 이루기 힘든 한인회관 설립사업을 2012년에 성공시켰다.

“2년 전 3층 건물 500평 규모의 한인회관을 만들었어요. 모금운동을 벌이자 십시일반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었어요. 한

인회관은 단동한인사회의 자랑이 됐어요.”

한인회관 설립이 단숨에 다 이루어진 것만은 아니었다. 2010년 이 회장이 수석부회장으로 일할 때 기획을 했다. 2012년 그가 회장으로 출마하면서 공약으로 내 걸었다.

“연성환씨라는 분이 10년 무상임대 조건으로 한인회관 건물을 빌려 주었어요. 이후 한인사회로부터 60만 위안을 모금했어요.”

이희행 회장은 한글학교가 없어 이리저리 학교를 옮겨 다녀야 하는 학생들을 위해 한인회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단동한국인회는 2000년 설립됐으니, 한글학교 교사들이 10여년 동안 교실을 임대해 사용해 왔던 것이다. 현재 한글학교에는 60여 명의 다문화 학생들이 다니고 있다. 아버지는 한국인이지만, 어머니가 한족, 화교, 조선족동포인 학생들이다. 이들이 한인회관에서 우리글과 우리 역사를 배우고 있다.

“앞으로 비즈니스센터도 열 계획이에요. 단동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지만 사무공간을 구하기 힘들 때 이용할 수 있어요. 한인들이 무료로 전화도 쓰고 팩스나 컴퓨터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입니다.”

(단동=이석호 기자)



단동한국인회 주요 임원

- △회장: 이희행
- △명예회장: 윤달생
- △고문: 강훈연, 오인수, 성구대
- △감사: 김석철, 강춘길
- △수석부회장: 광병태
- △부회장: 조병수, 박정용, 이원석, 소영주
- △사무차장: 이창실
- △운영위원장: 이수성

나종수 신일알루미늄 사장 “이제는 중국 내수시장 공략할 때”

나종수 신일알루미늄유한공사 사장은 종업원 200명이 일하는 알루미늄 주방용품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중국경기가 나쁘지 않았을 때 종업원 수는 600명에 달했다. 프라이팬, 주전자, 냄비, 밥솥 등을 생산하는데 연매출 규모가 1천500만 달러다. 그는 97년에 심양으로 건너와 이 사업을 하고 있다.

“한국기업들이 모두 힘들어 해요. 인건비가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3만 명의 심양 한국인 수가 1만 5천명으로 줄었어요.”

7월17일 저녁, 손명식 동북3성연합회장과 심양 서탑의 인기 만남의 장소 쟁카페를 찾았다. 미리 나와 있었던 임승찬 동전

의운동본부 간사는 이곳에서 7월28일 성남시에총이 후원하는 동전의희망 저금통 제작 후원을 위한 미술전시회가 열린다고 말했다. 손성종 연합회 사무총장도 함께 한 자리.

“우리기업들이 값싼 노동력이 있는 국가로 옮겨 다닐 때는 지났어요. 중국에 있는 한국제조업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니트를 생산하는 회사와 청바지를 만드는 회사가 힘을 합쳐 하나의 공동 매장을 설립하면, 위기를 넘길 수 있다는 것. 여성의류 회사가 많은 대련, 구두와 가구 회사가 많은 심양, 섬유와 액세서리

가 강한 칭다오에서는 한국인들이 공동 브랜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는 말이였다.

“5~6년 전부터 중국 내수시장 공략방법을 연구했어요. 아직도 연구단계에 있지만 누군가는 계속 실험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는 KS플라자라는 매장을 운영했다. 여러 업체가 매장에서 함께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봤는데 3년 간 총 10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봤다. 그는 한인회 산하에 내수촉진위원회를 만드는 등 중국 내수시장 공략 방법을 연구했다.

“실패도 했지만 실험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소득도 있었어요. 우리 회사 제품이 알려져 중국홈쇼핑에 연결됐어요.



전무했던 중국시장 비율이 25%로 올라갔어요.”

나종수 사장은 중국 각 지역 한국인회 네트워크를 활용한다면 개개인의 실패 확률이 줄어들 것이라고 조언했다.

〈심양=이석호 기자〉



김관식 회장 “신안민속촌은 중국에서 유일한 한국전통 예절교육장”

관식 회장의 사무실이 보였다. 김 회장은 총 3개의 직함을 갖고 있었는데 그는 신한민속촌의 회장이면서 신한보일러 사장이고 신한식품유한공사 사장이었다.

“제가 한국에서 보일러를 개발했어요.” 황당한 얘기 같았는데 그는 동아일보 등 한국신문 기사를 보여주었다. 스크립트를 해 놓은 신문에는 한국 시골 고등학교 과학 선생이 가정용 미약스팀 보일러를 개발했다고 적혀 있었다.

올해로 71세인 그는 21년 전 보일러사업을 하기 위해 심양에 왔다고 했다. 보일러

기술력이 중국보다 훨씬 앞서 큰돈을 벌었던 그는 이 돈을 신한민속촌을 짓는 데 사용했다고 말했다.

“심양에서 50분 정도 떨어진 무순에 5만 평 땅을 사 신한민속촌을 만들었어요.” 그는 이곳에서 크게 세 가지 교육을 했다. 인성 및 예절 교육을 했고 전통놀이를 가르쳤고 전통음식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했다.

“조선족동포 학생들이 민속촌을 찾았어요. 한국전통문화를 배우고 싶은 중국 학생들도 많았어요.” 총 1천여 회의 교육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체험교실을 제외한 모든 교육을 무료로 진행했다.

“신한민속촌은 중국에서 유일한 한국 전통예절 교육장이예요.” 이렇게 말하는 그는 7월18일부터 열리는 심양의 대표적인 행사 한국주간행사에서도 신한민속촌 예절교육이 진행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나이가 들어 떨어진 김혜숙 총경리에게 이 일을 물려줄 계획이라고 했다. 김혜숙 씨는 강원관광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 일하고 있다.

〈심양=이석호 기자〉

“5만 명의 학생들이 신한민속촌에서 한국전통의 예절을 배웠어요.”
7월17일, 중국 심양시의 한인타운 서탑 지하도를 따라가다 무술로로 들어서니 김

단동 1세대 비즈니스맨 최중현 창설모피 사장

“한중수교 이전인 1991년도에 중국에 왔어요. 홍콩비자를 받아 북경을 거쳐 단동에 왔는데, ‘앗 여기서’라는 생각이 팍 들더군요.”

최중현 창설모피 사장을 만난 때는 7월 14일 오후였다. 중국 단동시 서부틀게이

트 인근에서다. 단동에 가장 일찍 정착한 원로 중 한명이라고 이희행 단동한국인회장이 그를 소개했다. 단동 시내에서 자동차로 30분 정도를 달려 도착한 그의 공장.

최 회장은 90년대 후반부터 2003년까지 500만 달러의 연매출을 올릴 정도로 큰 사

업을 했던 인물이었다.

“장갑, 신발, 모자, 가방 등 모피 제품을 전부 만들었어요. 터키, 한국, 일본, 몽골에도 회사를 설립했어요.” 하지만 러시아에 또 하나의 회사를 설립하면서 풍량을 맞게 됐다고 한다. 한국에서도 모피로 제품을 만드는 사업을 한 그는 중국에서도 산전수전을 겪었던 것이다.

“한국의 봉제업 경쟁은 매우 치열했어요. 모피는 모두 사람의 손으로만 만들어야 하는 핸드메이드 제품인데, 인건비를 낮추는 게 중요했어요.”

이를 위해 중국에 진출했고, 청도, 연길, 천진, 위해 등 여러 곳을 다녔다. 하지만 단동만큼 마음에 쏙 드는 곳이 없었다고 한다.

“비록 북한이지만 우리 땅이 보였어요.



그게 좋았어요.” 그는 통일이 되면 우리조국과 가장 가까운 곳이 단동일 것이라는 생각에서 이곳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단동에 처음 왔을 때 세 가지가 좋았어요. 공기, 물, 그리고 사람이었지요.”

〈단동=이석호 기자〉





현지이러뷰

손명식 동북3성연합회장

“KBS 안중근 음악회 개최해요”

하얼빈정부, 심양총영사관, 민주평통 중국지역회의와 공동 주최



“한번 이 노래를 들어보세요. 제 친구 설운도의 신곡 귀향입니다.” 손명식 중국 동북3성연합회장이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보여줬다. 무순에서 전통예절 교육원을 운영하는 김관식 신한민속촌 회장이 연합회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였다.



“일어나 어서 고향으로 가자 어머니가 널 기다리신다. 60년 세월 오직 자식 위해 자나 깨나 눈물지신다.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외로웠니 차디찬 그곳에서 가슴 치며 울었겠니.” 설운도 씨가 직접 만든 곡의 가사.

손 회장은 그러면서 설운도가 어떻게 이 노래를 만들었는지 설명하기 시작했다. 자신이 만든 곡임에도 중국가수 진저와 부를 때 가슴이 북받쳐 목이 세 번이나 메었다고.

“한국전쟁 때 사망한 적군의 시체가 공식적으로 1천구 발견됐습니다. 비공식적으로는 10만구가 넘는다고 해요.” 비록 우리의 적이었지만 타지에서 사망한 어린 목숨을 위로하기 위해 어느 스님이 한국 파주에 있는 적군묘지에서 영불을 드러왔다고 한다. 그러다가 설운도에게 망자를 달래는 노래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는 것.

설운도 씨가 그냥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고 잠을 청했는데 갑자기 주위가 깜깜해지고 자기도 모르게 이곡을 만들었고 그렇게 해서 탄생한 노래가 ‘귀향’이라고.

“혹시 조선족동포들 중 한국전 참전자들의 모임이 있나요? 설운도가 참전자가족들을 위로하는 노래를 불러주고 싶어 해요.” 손 회장은 가수 설운도와 30년을 알고 지내왔으며, 조선족동포들을 잘 아는 김관식 회장에게 알아봐 달라고 요청을 했다. 우리에게는 비록 적군이었지만 그 어머니들은 어린 나이에 목숨을 잃은 자식을 가슴에 묻었을 것

이고 이들을 위로하고자 한다고.

7월16일 오후, 심양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주상복합아파트 한국신성에서였다. 26층 제일 높은 곳에 동북3성연합회 사무실이 있었다.

“한국신성은 아파트단지 이름이고, 한 단성은 제 회사 이름이에요. 심양 택시 기사들에게 물어보면 모두 알아요. 한 단성에는 한국과 중국 사람이 떠오르는 첫 태양을 맞이하며 즐겁게 산다는 뜻이 담겨 있어요.”

손 회장은 2005년 1천200 가구가 살 수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단지를 심양 시내 황고구에 지었다. 유통업을 접었을 때 했는데 심양에서는 건설사업을 했던 것.

“동북3성연합회장을 꼭 하고 싶어요. 우리 후배들이 한국을 자랑스러워

할 수 있도록 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손 회장은 1992년부터 심양에 거주했다. 그는 심양의 옛 이름이 만주, 봉천이었다며 역사적으로 심양은 한국과 매우 밀접한 곳이라고 말했다. 또한 동북3성은 독립운동의 역사가 깃든 곳이라고도 했다.

“8월10일 동북3성연합회가 KBS 안중근음악회를 하얼빈 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할 예정이에요. 8월24일에 공중파를 통해 방송될 것으로 보여요. 하얼빈정부의 최종 승인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얼빈정부, 심양총영사관, 민주평통 중국지역회의와 공동 주최자로 참여하는 사업이다. 손명식 회장은 2009년 심양 전국노래자랑, 2010년 심양 열린음악회가 열릴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하기도 했다.

그는 이번 안중근음악회가 중국정부가 하얼빈 역에 안중근박물관을 설립해 준 것에 대한 답례성격을 띄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양=이석호 기자〉





2014년 제10회 중국 연길 두만강지역 국제투자무역 박람회



8월27일 ~ 31일(연길국제전시장)



박람회 개막식



장백산관광

외국 30개국바이어 1500여명 참석

전시부스: 350여개 설치

국내 바이어 5000여명 참석

무역상담회, 상품전시회, 투자설명회

접수

연길박람회 준비위원회
Tel : +86-433-280-6226
Fax : +86-433-253-1810

연길박람회 서울사무국
Tel : 070-7807-4972
E-mail : goexpo@naver.com

주관 : 연길시인민정부
주최 : 연변주정부, 길림성상무청
길림성무역추진위원회



전시박람회



개막식전공연



중한벤처포럼



무역상담회



해란강골프



가무단공연

“심양한국주간은 중국 최대규모 한인사회 행사”



현지인 인터뷰

이성희 심양한국인회장

7월17일 오후 4시. 평, 평, 평, 평, 평. 귀청을 찢을 것 같은 축포가 터졌다. 어찌나 소리가 크던지 모두 귀를 막아야 했다.

제3회 서탑 미식 문화축제가 녹색 빛 소형 대포 5대의 축포로 시작됐다. 25발의 축포가 미식 문화축제와 심양한국주간의 시작을 알렸다. 데이프 커팅식을 마치자, 김관식 신한민속촌 회장이 이끄는 풍물놀이단이 팽과리를 쳤다.

“심양한국주간은 전 중국 한인사회 행사 중 가장 큰 규모로 열리는 행사입니다.”

미식 문화축제 개막식이 열린 곳은 서탑 앞에 바로 난 도로변이었다. 200~300미터 도로에 100여개의 한국음식과 중국음식 부스가 마련됐다. 한 한국부스에서는 떡메 치기가 진행됐다.

“서탑 미식 문화축제 개막식을 통해 22일까지 심양한국주간이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이성희 심양한국인회장은 최종석 심양한국총영사관 교민담당 영사 등과 부스를 차례로 돌며 이렇게 말했다.

심양한국주간은 올해로 13회를 맞는 심양시의 최대 행사. 심양시정부와 심양한국총영사관이 공동 주최하고 심양한국인회와 서탑이 있는 화평구인민정부가 주관하는 행사다. 서탑 미식 문화축제는 3회째 열리고 있다고 했다.

“서탑은 조선족동포와 한국인이 어울려 사는 곳입니다. 한인동포의 본거지에서 한국축제가 열리는 것이지요.” 심양에 거주하는 조선족동포 10만 명 중 절반이상이, 한국인 1만5천 명 중 대다수가 서탑인



근에서 살고 있다고 한다.

“일제시대 많은 한국인들이 서탑에서 모여 살았어요. 코리안타운이 오래 전에 형성됐던 것이죠.” 서탑은 일제시대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한 독립군 부인들이 장사를 했던 곳. 서탑이 독립군 자금을 조달하는 동네로 형성됐다. 김두한, 시라소니 등이 활동하던 곳도 바로 서탑 북시장 일대라고 했다.

“2001년부터 심양에서 비즈니스를 했어요.” 그는 한국인회관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한 도레미사우나를 비롯해 보석호텔, 용천 등 3개의 사우나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중국인들에게 사우나와 찜질방 문화가 없었을 때 이 사업을 했는데 날씨가 추운 동북3성이어서 히트를 쳤다고.

“여기 현지인들은 9월부터 다음해 5월

까지 내복을 입어요. 여성 사우나도 제가 처음으로 만들었는데 인기가 좋았어요.”

이 회장은 2012년 재외국민선거가 있을 때 공명선거추진위원회를 만들며 한인사회에 관심을 갖게 됐고, 그해 한국인회장으로 선출됐다. 그는 현재 재중국승마협회, 산악연맹회장 등을 맡고 있다고 했다.

“올해 심양한국주간에서는 6쌍의 결혼식이 열릴 거예요. 형편이 어려운 중국인들을 돕기 위한 행사입니다.”

그는 올해 행사 중에서 2014인분 비빔밥 퍼포먼스가 행사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할 거라고 말했다. 동북3성 경제포럼, 동북3성 태권도대회, 노래자랑, 한복패션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번 한국주간에서 진행된다고 또한 소개했다.

〈심양=이석호 기자〉



심양한국인회 조직도

- △회장: 이성희
- △수석부회장: 방영완
- △부회장: 이재선, 박정태, 이경아, 김만섭, 이정인, 최명수
- △지회장: 김창규(북부지회), 이성원(중부지회)
- △명예고문: 신봉섭
- △감사: 박종석, 김제섭
- △사무국장: 문충훈
- △전임회장단: 손명식, 이종후, 장현석, 안경찬, 허경무, 김성웅, 권유현, 성순태



한인단체 게시판

항주한국인(상)회, 월례모임

항주한국인(상)회는 ‘항주한국인 월례모임’과 이성수 사무국장 결혼식 피로연 모임을 7월16일 오후 6시30분 한국촌에서 개최했다. 항주한국인(상)회 회원 및 교민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항주한국상회 사무실 이전일자 △사물놀이 의상 및 악기 활용방안 △항주중재위원회 MOU 체결식 및 세미나 개최건 등이 논의됐고 임명장 및 위촉장 수여식이 진행됐다.

사천성한국인(상)회, 7월26~31일 ‘송이축제’

사천성한국인(상)회(회장 김수부)는 사천성 교민을 위한 송이축제를 7월26일부터 31일까지 매일 오전11~오후 9시, 대세계상업광장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인회는 “두장옌(都江堰) 시정부에서 한식당 개업 등 관광 서비스 분야 투자 유치를 위해 청두시에 진출한 한국기업인들을 초청·시찰하는 행사를 갖고자 한다”며, “두장옌 지역에서 한식당 개업 및 관광분야 투자에 관심 있는 교민들은 참가 여부를 7월21일까지 신청하길 바란다”고 공지했다.

천진한국인(상)회, ‘원 데이 페스티벌’ 열어

천진한국인(상)회(회장 이무근)는 국내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4인조 색소폰 연주팀, S.WITH 색소폰 앙상블을 초청해 7월12일 천진한국국제학교 강당에서 ‘원 데이 페스티벌(One Day Festival)’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세월호 사건 이후 천진 교민사회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음악 콘서트로, 천진색소폰 동우회, 청소년 유학생들, 기업인 등 200여 명의 동포들이 참석해 한여름 밤의 감미로운 클래식에 매료됐다.

선녀산 휴양을 통한 힐링 체험,
즐거운 관광과 쇼핑을 즐길 수 있는 미래 도시

중경선녀산 성제미래성



[단지 구획 개요]

성제디지털랜드는 신화우릉파크, 미래세계파크, 국제교류공연관, 디지털게임관, 생태공원, 가정낙원관 등 5개의 테마존으로 구성되며, 테마 프로젝트를 비롯하여 놀이공원, 레저 및 경관구 등 1,000여 프로젝트를 포함하고 있다. 천막애니메이션골든가는 인공으로 조성한 “천막창공”으로 힘써, 환상적인 쇼핑 및 휴식장소로 조성된다. 내부는 테마쇼핑거리, 리조트 호텔, 특색F&B, 애니메이션 캐릭터샵, 애니메이션예술센터, 애니메이션 아카데미, 전자경기훈련 센터, 애니메이션 온라인 게임 개발 및 운영 센터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국제스마트리조트 단지는 최첨단 과학기술이 집성된 생태양육, 별장, 단지 내 플랫폼을 통해 에너지, 채광, 배출, 보안, 의료, 홈케어 등을 스마트 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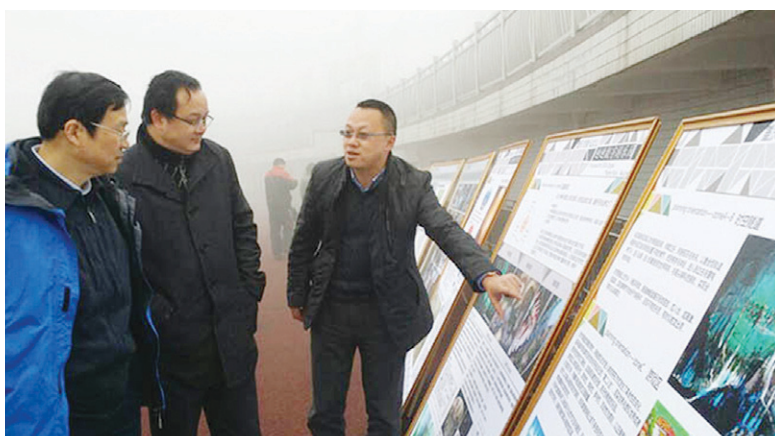
선녀산성제미래성 프로젝트는 중경중역재증관광문화산업투자유한 회사가 투자 개발하고, 부지면적 1976무(중국식 토지면적 단위, 1무=한국의 약 200평), 건축면적 56만 평방미터, 총 투자금액 30억 위안의 규모에 달하는 개발 프로젝트이다. 이곳은 “하나의 공원, 하나의 거리, 하나의 단지”로 개발 건설될 예정이다. “하나의 거리”, 천막애니메이션골든가의 개발 면적은 183무이고, “하나의 공원”, “성제디지털랜드”의 개발면적은 465무이며, “하나의 단지” 국제스마트형리조트단지의 개발면적이 1,328무에 달한다.

중경시 중요 프로젝트인 선녀산성제미래성은 중경의 관광문화산업 수준을 한층 높이 끌어 올리는데 개발목적을 두고 있다. 2014년에 프로젝트를 착수하여 2017년 6월 성제디지털랜드가 개장 예정이며, 2018년에는 천막애니메이션골든가의 오픈, 2020년에 국제스마트형리조트단지가 완공될 예정이다.

한 외부 기관의 추측에 따르면 개장하는 첫 해 입장객이 1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전체 프로젝트 단지가 완공된 후, 일일 방문객 수를 최대 1만 명까지도 예상해 볼 수 있다고 한다.



중경시인민정부 황치판 시장이 주최하여 열린 회의를 통해, 성제미래성 개발 프로젝트가 입안됐다.



중공 중경시 상무위원회 및 홍보부장 연핑이 현장에서 프로젝트 관련 보고를 받고 있다.



중경시인민정부 탄치아링 부시장이 관계자들을 인솔하여 선녀산성제미래성 개발현장을 직접 시찰하고 있다.

중경선녀산 성제미래성 전략 파트너 모집!



재중국한국인회와 프로젝트 전략합작 기본 협서 체결



한국측 파트너사인 CJ그룹, COM2US등 고위임원들이 중경시 현장 방문 및 시찰

중경중역재중관광문화산업투자유한회사는 관광문화 산업개발, 운영, 투자 전문회사로서, 등록 자본 1억 인민폐, 직원 35명 중 90% 이상이 대졸 이상의 학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사는 “비즈니스는 한계가 없다”라는 경영방침에 입각하여, 중경시 우롱 현 카르스트 지형의 특색을 살려, “인터랙티브, 체험, 경기, 변환”의 핵심 이념을 계승하고, 우롱 선녀산에 세계일류의 성제디지털랜드를 개발하여, 중국의 디즈니랜드, 롯데월드로 불리울 수 있도록 건설하며, 우롱을 국제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중국식 “황석공원”으로 거듭나는데 비전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을 함께 할 전세계의 전략적 파트너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당신 혹은 당신의 팀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었다면 저희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대형 오락시설 공급업체

- 대형놀이시설의 디자인 개발 능력을 보유한 업체
- 대형놀이시설의 생산 제조 능력과 상응하는 자질을 갖춘 업체
- 세계시장에 공급한 한 세트 이상의 검수를 통과한 복잡한 대규모 놀이시설 제조업체

오락 소프트웨어 및 주변 장치 개발 업체

- 대형TV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적어도 한 종류의 작품 판매량이 백만 이상에 달한 적이 있는 업체
- 기반 조직을 갖추고 대형온라인게임의 개발능력을 보유하고 적어도 동시에 한 종류의 작품의 온라인 동시 접속자 1만 명 이상인 업체

비디오 및 특별효과팀

- 영화급3D디자인과 애니메이션 제작능력 ;
- 방송급 비디오 효과처리 및 후기편집능력 ;



공공오락 시스템 관리 운영기구

- 일일 방문객 5000명 이상의 대형 테마파크를 성공적으로 운영한 경험 보유
- 10,000명 이상의 사용자가 동시 접속하는 온라인게임을 성공적으로 운영한 경험 보유
- 흥행이 1억 인민폐를 넘어선 대형영상제품의 성공적인 마케팅 경험 보유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문의 및 파트너십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중경중역재중관광문화산업투자유한회사

주소 : 중경시 북부신구 동호로3호 중철봉회국제대학B동21층
우편번호 : 401121(重慶市 北部新區 東湖路 3號 中鐵峰匯國際大廈 B棟21層)
TEI : 023-67515555 E-mail : zyczcq@126.com
※더욱 자세한 연락정보는 www.zyczcq.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중문화교류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현지인러뷰

안청락 신생활집단(new life) 부회장



“저 건물이 원동파사입니다. 지금의 신생활집단을 만든 곳이에요. 24시간 사무실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7월18일 오후, 중국 심양시 화평구를 지나가고 있을 때 안청락 신생활집단유한공사 부회장이 창밖을 보며 말한다. 그는 부회장이라는 직함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회사의 중국 경영을 총괄하고 있는 인물.

신생활집단(new life)은 한국 화장품업계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회사다. 중국 전역에 70개 지사를, 6천여 개의 대리점 점포를 갖고 있다. 심지어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도 진출해 있다. 광둥성, 복건성을 제외한 모든 중국 모든 성에 진출해 있다. 국내 화장품업계 대기업들도 힘들어하는 중국진출을 성공시킨 회사다.

이 회사는 중국 심양에 1992년 진출해 94년부터 영업을 본격화했는데 96년부터 2000년까지 화평구 원동파사에서 힘을 키웠다는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 중국인들에게 동기부여를 해 주었어요. 열심히 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었어요.” 심양한국주간 개막식에 참

석한 뒤, 안 회장과 심양과학관으로 가고 있었다. 심양과학관에서 한중문화상품전시회와 안 회장이 후원하는 한국 서화사진전이 이날부터 5일간 진행될 예정이었다.

“직원들에게 인성, 소양교육을 시켰어요. 높은 점수를 받으면 빠르게 승진시켜 주었습니다. 직원들에게 행복을 전해야 한다고 교육시켰죠.” 이러한 회사 전략 때문일까. 신생활집단은 중국에서 매출을 가장 많이 올린 한국

화장품 회사가 됐다. 국내 대기업 화장품의 총수익을 합쳐도 이 회사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화장품 시장의 발전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아직 30% 밖에 개발이 안 됐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20년은 끄떡없이 계속 발전할 거예요.” 그가 꼽는 성공비결은 중국에 일찍 진출해 현지에서 빠른 판단력으로 회사를 움직였다는 것이다. 중국에서의 사업은 무엇보다 현장에서 신

속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는 말했다.

“중고등 학창시절 해금을 연주했어요. 대학에서는 대금을 불었지요.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큼니다.” 그는 한양대학교에서 국악을 전공했다. 고등학교는 남산에 있었던 국립국악고등학교를 다녔다. 하지만 대학을 졸업한 뒤 ROTC 장교로 복무하다가 1992년 심양에서 지금 이 회사 회장인 친형님과 화장품 사업을 함께 했다.

비즈니스를 하면서 악기를 다루지 못했지만, 11년 전 배창호 감독의 길의 메인 스폰서를 맡는 등 예술에 대한 관심을 가져왔다. 최근에 그는 심양한중문화교류원 이사장을 맡으며 한국인들의 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한중문화교류원은 정치적 성격이 없이 순수하게 우리문화와 역사를 연구하는 곳입니다. 한중문화교류의 마중물이 되고 싶어요.” 그는 심양한국국제학교재단 이사, 심양한국인회 고문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심양=이석호 기자〉



한국 가야금 소리, 중국 상하이에 울려 퍼져

‘대가야가야금연주단’, 개원7주년 기념행사 피날레 장식

한국의 가야금 소리가 중국 상하이에 울려 퍼졌다. 주상하이한국문화원은 개원 7주년 기념 행사의 마지막 날인 19일 열리는 폐막식에 한국에서 특별 초청한 ‘대가야가야금연주단’의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였다.

7월19일 주상하이한국문화원 3층 다목적홀에서 펼쳐진 이 공연에는 대가야가야금연주단의 정해임, 김연정, 최옥희, 김윤지, 배진영, 안아윤, 이지선, 최희수, 이정원, 김수연이 출연해 아름다운 가야금 선율과 우리 가락의 흥과 신명을 다양하게 알릴 수 있는 여섯 곡을 연주했다. 한편 대가야가야금연주단은 국내외적으로 가야

금 음악을 보급하고자 창단된 연주단체로 2002년 창단연주회를 비롯해 고령 국제금(琴)교류연주회, 경주엑스포공연, 상설공연, 경북 물산전 초청 국악연주회 등 수준 높은 공연을 해왔다.

〈이호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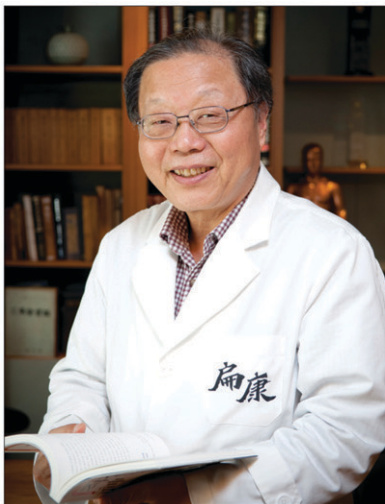
6만

아토피 5만, 비염 6만, 천식 4만 3000명을 고친 사나이의 40년 노하우

‘기적의 건강법’이 되어 3만 독자를 열광시키다!

5만

4만



《기적의 건강법》 저자 편강한의원 서효석 대표원장

3만

아토피, 비염, 천식 치료 혁명을 이룬다

자신의 편도선염을 고치려다 현대인의 6대 난치병 환자 15만 명을 고친 사나이의 이야기를 아는가? 편강한의원 서효석 원장은 어린 시절부터 편도선염을 자주 앓았다. 심각했던 그의 편도선염 증상은 어린 시절을 송두리째 앓아갔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를 괴롭혔다. 병원 치료도, 편도선염에 좋다는 약도 그의 병을 근본적으로 뿌리 뽑지는 못했다. 한의사가 된 이후에도 고통은 계속되었다. 남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라도 내 병부터 고쳐야 했다.

그때부터 스스로가 임상실험의 대상이 되어 겁 없는 연구를 계속했다. 막히면 의서를 뒤졌고 자다가도 생각이 떠오르면 일어나서 약을 만들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던가. 그는 포기를 모르는 사나이의 근성으로 편도선의 염증을 없애는 것은 물론 몸의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처방을 찾아냈다. 자신의 고질병을 치료해낸 이후 편도선염을 자주 앓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 약을 처방했고 많은 환자들도 실제로 편도선이 치유됐다. 효과는 거기에 그치지 않았다. 그의 40년 노하우가 고스란히 담긴 이 약을 처방받은 환자들은 비염이나 천식, 기관지염 등의 호흡기질환 증세가 호전되었다. 더 놀라운 것은 아토피피부염, 기미, 건선, 두드러기 등의 피부질환에도 효과를 나타냈다는 것이다.

천식 근치 환자

현대의학의 상식을 깬 ‘기적의 건강법’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을 ‘기적’이라 한다면, 편강한의원 서효석 원장은 현대의학계의 상식을 거스르는 기적과도 같은 사례를 15만 건 이상 이루어냈다. 그러나 그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한다. 오랫동안 낫지 않는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고 그들에게 ‘기적의 건강법’을 전파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

그가 집필한 <기적의 건강법>에는 큰 병을 앓지 않고 99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법이 자세히 정리되어 있다. 이 책에는 아토피 6개월, 비염 3개월, 천식은 4개월 만에 푹 떨어뜨리는 치료 원리가 실제 치료 사례와 함께 담겨있어 그 원리를 제대로 입증한다. 또한, 편도선염에서부터 축농증, 폐기종, 폐섬유화, 기관지확장증, 폐암에 이르는 난치성 질환 치료법도 이해하기 쉬운 그림과 함께 살뜰하게 정리해 놓았다.

기적적인 치료의 시작은 ‘폐’

현대의학에서는 아토피, 비염, 천식을 각각의 질환으로 보는 데 비해 편강한의원 서효석 원장은 이 세 가지 질환을 폐 기능 저하에서 오는 ‘뿌리가 같은 질병’으로 본다.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과 병명은 다르지만, 그 원인은 같다는 것. 그는 아토피, 비염, 천식의 뿌리를 오장육부의 으뜸인 ‘폐’에서 찾는다. ‘건강을 지켜주는 핵심 기운인 원기가 폐에서 비롯된다’는 한의학의 기본 원리에 착안한 것이다. 따라서 질병의 근원인 ‘한 뿌리’만 제거해주면 세 가지 질병이 함께 사라지게 된다.

폐 활용률 17% 시대... 당신도 혹시?

<지금 당신의 폐 건강은 어떠한가?>

- ✓ 감기에 자주 걸린다.
- ✓ 공기가 탁한 곳에서 기침이나 재채기를 자주 한다.
- ✓ 하루 일과의 대부분을 밀폐된 공간에서 생활한다.
- ✓ 가족 중에 알레르기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다.
- ✓ 규칙적인 운동은 전혀 하지 않는다.

아토피 근치 환자

이 중 두 개 이상의 항목에 체크된다면 당신의 폐는 이미 반란을 시작했다. 폐의 반란은 곧 면역력 저하로 이어진다. 면역체계가 건강하고 원기가 충만한 상태에서는 외부의 어떤 자극이 있어도 증상 없이 지나가지만, 면역식별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는 위험하지 않은 물질에도 과민반응을 일으킨다. 편강한의원 서효석 원장은 “면역력을 주관하는 것은 편도요, 편도는 폐 기능 활성화에 달려있다.”고 말한다.

‘폐’가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탄산가스를 버리고 산소를 받아들이는 일이다. 그러면 혈관 속의 적혈구는 폐가 받아들인 산소를 신속히 몸의 여러 장기로 운반한다. 즉, 외부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침범해 들어왔을 때, 용감하게 맞서 싸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폐가 건강하면 적혈구와 백혈구의 활동 역시 활발해진다. 반대로 폐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 적혈구와 백혈구의 활동력이 떨어져 심각한 신체질환을 일으키게 된다.

그러나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폐 건강은 어떠한가. 오염된 환경과 과중한 스트레스로 인해 우리의 체내에는 열이 발생한다. 발산하지 못하고 폐에 쌓인 적열은 폐 기능 저하로 이어져 우리 몸 최전방 수비수인 편도선을 악화시킨다. 그 결과 인체의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아토피, 비염, 천식 등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각종 호흡기질환, 피부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폐에 쌓인 적열을 씻어내는 것이 우선이다. 서 원장은 현대인의 이러한 현상을 폐 활용률 17% 시대로 선언하며, 폐 기능의 중요성을 알리기에 고군분투하고 있다.

폐를 다스려 면역체계를 바로잡는 ‘편강탕’ 치료 원리

서효석 원장이 40년에 걸친 연구와 집념으로 개발한 ‘편강탕’은 폐를 맑게 정화해 심폐기능을 강화시킴으로써 편도선을 튼튼하게 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튼튼한 편도선은 어떠한 유해물질이 인체에 침투해도 거뜰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인체의 면역력을 높여준다. 또한, 편도선이 강해지면 여기서 힘을 얻은 임파구들이 몸에 나쁜 균을 물리치는 식균작용을 활발히 함으로써 감기를 예방하고 아토피, 비염, 천식을 물리치게 된다. 어긋난 몸의 균형을 바로 잡아 알레르기 체질을 정상 체질로 바꿔 각종 난치성 질환을 이겨낼 수 있는 자생력을 키우는 것이 핵심이다.

비염 근치 환자



KBS, MBC, SBS, 미국 NTD TV까지... 러브콜 쇄도

각종 알레르기 질환을 폐 기능 강화를 통한 면역요법으로 치료하는 서효석 원장은 ‘알레르기 치료의 명’으로 불리며, 국내외 유력방송에서 잇따른 러브콜을 받고 있다. KBS ‘여유만만’, ‘생방송 오늘’/MBC ‘프라임’, ‘기분 좋은 날’/SBS ‘뉴스와 생활경제’ 등 국내외 방송 출연에 이어 전 세계 화인 대상으로 송출되는 미국 NTD TV 한중 합작 프로그램 ‘주근한의(走近韓醫)’에서도 한국을 대표하는 명의로 출연하고 있다. 이외에도 그는 국내외 다양한 활동을 통해 난치성 알레르기 질환자들의 희망이 되어 그 명성을 드높이고 있다.

기적의 건강법을 경험하고 싶다면
02) 522-5223

40년 노하우





“남북한 민간교류는 계속돼야”

현지인터뷰 **이희행 단동한국인회장**

“저기 보이는 다리가 신압록강 대교입니다. 10월에 개통될 예정이에요.”

단동 압록강에서 중국 배뿐만 아니라 북한 배가 함께 운행되고 있었다. 손끝에 닿을 것 같은 거리에 신의주가 보였다. 7월14일 오전. 전날 저녁 중국 심양에서 3시간 거리 단동으로 이동했는데, 비가 한 차례 내려서인지 후텁지근했다. 자동차 창문을 열고 이희행 단동한국인회장과 약 20km 떨어진 압록강 강변도로를 내달렸다.

“신압록강 대교가 개통되면, 트럭 화물 수송량이 크게 늘 거예요. 단동의 최대 이슈이지요.” 북한과 가장 인접한 도시인 단동시는 인구 70만 명의 도시.(광역 단동은 약 260만 명) 도문, 훈춘, 연길 등에서도 중국과 북한의 물품 교류가 있지만, 약 70%가 단동에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의 5.24 조치로 한국인들은 북한과 직접 무역을 할 수 없게 됐다고 한다. 2010년 3월 천안함이 침몰되면서 내려진 조치다.

“북한과의 민간 무역이 반의 반 토막이 나버렸어요. 5.24 조치 후

한국인 수도 급격히 줄었어요.” 몇 년 전만해도 3천여 명에 이른 한국인 수가 1천여 명으로 줄었다고 이 회장은 말했다. 한국인들은 민경련(민족경제협력연합회)을 통해 직접 북한과 무역을 할 수 있었지만, 공식적인 북한과의 교역 통로가 사라져 버렸다는 것.

11년 전 이곳에 와 의류 무역사업을 해 온 이 회장은 한국인들이 비즈니스 터전을 잃은 반면, 그 빈자리가 중국인들에게 넘어가 중국인들이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철조망 너머로 보이는 곳이 황금평 개발지역입니다. 북한군을 향해서 큰 카메라로 촬영해서는 안 돼요.” 중국과 북한은 2011년 황금평-위화도 공동개발을 선언하고 엄청난 규모의 사업계획을 시행하려고 했다. 그게 황금평 개발사업이다. 당시 중국은 약 140억 원의 국고를 지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북한 장성택의 처형으로 이 개발 사업에 급제동이 걸렸다.

“한국전쟁 때 파괴된 압록강 철교가 관광지가 돼 버렸어요.” 황금평에서 차를 돌려 약 15분

을 달리자, 다리 중간부분이 폭넓은 압록강 철교가 그 모습을 드러냈다. 전쟁의 상처를 간직한 이곳에서 중국인들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먹거리와 기념품을 파는 중국인들로 압록강



철교 앞 도로가 딱 차있다니. 압록강 철교가 관광상품화 된 것이다.

“2차 세계대전 때도 민간차원의 밀 교역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민족의 경제교류가 이렇게 전면 중단됐어요.”

이희행 단동한국인회장은 서울

대 인류학과를 나온 엘리트다. 그는 우리민족의 통일을 위해서는 남북한 민간교류가 우선시돼야 한다고 보았고, 2000년대 초반 단동을 제2의 고향으로 선택했다. 이곳 단동에는 한국인 1천 명이, 북한 사람 1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또한 조선족 동포들이

상당수 거주하고 있고 만주족 등 소수민족이 어울려 살고 있다. 단동은 인류학적으로 보았을 때 연구할 부분이 많은 듯 했다. 이 회장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부산경남·단동지회 부대표로도 활동하고 있다.

(단동=이석호 기자)

영사관·문화원 소식

주중대사관 영사부, 천진지역 순회영사

주중대사관 영사부가 영사관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교민들을 위해 천진 지역을 대상으로 순회영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천진지역 순회영사는 7월22일 천진한국인(상)회 사무국(남개구 웨스톤 호텔 5층)에서 실시됐다. 전자여권 발급 신청, 공증관련 접수업무, 재외국민등록신청 등 영사서비스 업무가 이번 순회영사에서 진행됐다.

주시안총영사관, 10월 ‘한국 관광사진 콘테스트’ 개최

주시안한국총영사관이 ‘한국 관광사진 콘테스트’를 개최한다. 한국 관광사진 콘테스트는 한-중 상호 방문객이 증가함에 따라 양국 국민 간 이해와 우의 증진, 양국 관광 활성화를 위해 마련되는 것으로 7월부터 9월1일까지 두 달간 한국에서 촬영한 사진과 사진에 담긴 자신만의 이야기를 접수받는다. 접수받은 사진은 9월 중순 심사하며, 수상작을 선정해 10월 중 전시와 시상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수상자에 상장과 상금 또는 상품이 주어진다.

KOTRA 베이징, 中 내륙 진출 창업설명회

KOTRA 베이징 무역관이 7월16일 오후 2시부터 베이징 조양구 왕징에 소재한 교육문화회관 3층 연회장에서 ‘청년 예비 창업가 대상 내륙 창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한국 중소기업이 중국 내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창업가들과 함께 중국 2~3선 도시에 진출함으로써 한국제품의 판로개척 및 청년 해외창업 확대를 목적으로 진행됐다.



한인청소년들 “세계는 우리가 접수한다!”

차세대 글로벌 리더양성 위한
‘2014 세계청소년지식포럼’ 열려
중국·미국 대거 참가



“세계는 우리가 접수한다”는 국내외 한인청소년들의 구호가 우렁차다.

전 세계 한인청소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세계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글로벌 리더십을 키우는 ‘2014 세계청소년지식포럼’이 7월1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 파크텔에서 개막식을 갖고 5박6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글로벌청년재단(GYF), 자유교육연합, (사)좋은학교운동연합, 월드코리아신문이 공동주최하고, 안전행정부, 한국예술종합학교, 서울미술고등학교, (주)나눔과 별, 뽕금출판사, 경희대학교, 남양주종합촬영소 (주)Interbath가 후원하는 ‘세계청소년 지식포럼’은 국내외에 거주하는 한인청소년들이 참가하는 여름 캠프이다.

올해로 4번째를 맞이하는 세계청소년지식포럼은 안전행정부의 ‘2014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으로서 7월19일부터 24일까지 서울, 경기, 강원 등지에서 진행됐다. 올해에도 세계 한인청소년들이 한국의 문화, 예술, 역사를 체험하며, 다양한 주제를 통해 소통하고 토론하는 장이 마련됐다.

특히, 글로벌 리더십 양성차원에서 △에코 리더십(열린강연·캠페인 피켓 만들기·탄광문화촌 및 고씨동굴탐방) △서버트 리더십(초청특강) △아트 리더십(비행



기모형 만들기·티셔츠 디자인·김삿갓 유적탐방) △소셜 리더십(푸드아트) △액트 리더십(국제이슈 모의재판) △컬처 리더십(남양주영화촬영소 탐방·한국홍보 UCC제작·장릉탐방) △드림 리더십(멘토 강연·우수대학 탐방·토크 및 퍼포먼스 경연) △글로벌 리더십(초청특강·다문화 체험·UN사무총장 가상투표) 등 8가지 리더십으로 세분화해 차별화된 프로그램들을 마련했다.

자유교육연합 김정수 상임대표는 “이번 포럼에서는 세계 청소년들이 스스로 국제 이슈와 환경문제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벌이고, 글로벌 리더가 갖춰야 할 요건과 역량에 대해 집중적으로 탐색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날 개회식에서는 국제청소년예술단(단장 장광식)이 세계청소년지식포럼에 참가한 국내외 청소년들을 환영하기 위해 진도북춤, 창작무용 ‘높’, 가야금병창, 전통춤 ‘반고’, 축선 자수춤, 창작무용 ‘다시 필 꽃들을 위해’ 등의 축하공연을 펼쳐 보였다.

제미정 세계청소년지식포럼 단장은 개회식 인사말을 통해 “세계청소년지식포럼에 참여하고자 국내외 해외 여러 곳에서 온 청소년들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한국은 내게 어떤 의미이고, 나는 한국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제 단장은 “한국인으로서 글로벌 사회에 나아가 활약하기 위해 지금 어떤

역량을 길러야 하는지, 한국과 한국인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 된다면 더욱 알찬 포럼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사)좋은학교운동연합 정호영 사무총장도 축사를 통해 “올해는 더 재미있고 유익한 프로그램들을 마련했다”며, “가장 중요한 건 청소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니 보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포럼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세계청소년지식포럼에는 국내 및 재외동포 중·고등학생 50여명이 참가했다. 특히, 13~19세의 재외동포 청소년은 재외동포재단 또는 타 기관의 모국방문 프로그램 참여 기회가 없었던 학생들을 중심으로 참가신청을 받았다.

〈고영민 기자〉

중 서부 진출 플랫폼, ‘중국 서부 국제박람회’

중국 서부지역 최대 국가급 전시회... 10월30~11월3일, 청두에서



중국 서부지역 최대 국제박람회로서 올해 15번째를 맞이하는 ‘제15회 중국 서부 국제박람회(The 15th Western China International Fair)’가 10월30일부터 11월3일까지 5일간 성도세기성신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중국 발전계획위원회, 상무부, 과학기술부, 농업부, 문화부 등 15개 국가부처와 서부 12개 성(자치구) 등이 주최하고, 쓰촨성 인민정부가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농업산업관, 보석·액세서리관, 국제·국내상품관, 생활거주용품관 등 5개 전시관과 실

외전시관 등으로 분류·진행된다.

역대 대회에서 원자바오 전 총리를 비롯해 중국 최고 지도자들, 외국 정·재계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투자촉진과 교류, 무역협력을 다지는 화합의 장으로 중국 서부지역 대외개방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주요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중국 서부 유망전시회 한국기업관 조성업체인 ‘청두암봉(중환)비즈니스서비스유한회사’에 따르면, 전시가 개최되는 청두지역은 자동차 보유량, 백화점 매출, 가전 및 사치품, 화장품 판매액 등 모든 분야에서 전국 5위권을 차지하고 있어 외국 제조업 유통업체가 각별히 신경을 쓰는 곳.

이번 국제박람회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8월5일까지 박람회 한국기업관 조성업체 담당자에게 연락하면 된다. 〈이호근 기자〉

중 위해시, ‘2014 한중문화콘텐츠·아이디어 상품 박람회’

8월22~24일, 위해시 국제교역센터서... 참가기업 모집중

중국 산둥성 인민정부는 한·중 양국의 문화콘텐츠 및 아이디어 혁신 상품의 교류를 위한 ‘2014 한중 문화콘텐츠 및 아이디어 상품 박람회’를 8월22~24일, 산둥성

위해(威海)시 한락방(국제교역센터)에서 개최한다.

중국 공산당 18차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중국정부는 문화콘텐츠 사업 및 아이디어

상품 발전에 대한 강력한 지시를 내릴 정도로 문화산업 지원에 대한 굳은 의지를 보이고 있다. 위해시 인민정부가 주관하며, 한중 양국의 아이디어 혁신 상품 공동 발전 및 교류를 위해 개최되는 이번 박람회에는 200개사(약 400개 부스)가 참여할 예정이다.

모집분야는 실내장식, 소프트웨어, 게임, 공예품, 장식품, 여행 기념품, 영화 및 시청각 기재(휴대폰 카메라, 블랙박스), 드라마 캐릭터 등 문화산업 및 첨단기술제품, 아이디어 혁신제품이다. 상품전시 및 구매상담회, 기타 부대행사 등이 진행되는 박람회에는 중국 전역에서 수많은 바이어들이 참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영민 기자〉



윤달생 전 단동한국인회장

“한중관계 개선에 한인사회 역할 커”

단동한국인회는 2010년 다문화 결혼식을 진행했다. 한국인 신랑과 중국인 각시를 맺어주는 사업이었다. 한국인회는 10쌍이 넘는 커플에게 결혼식을 올려주었고, 제주도 신혼여행까지 보내주었다. “우리집도 다문화 가정이에요. 다문화 가정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었죠.”

7월15일 오전, 단동 시내의 한식당인 동해관. 그는 20년 넘게 단동에서 비즈니스를 해 온 단동 교민 1세대이다. “다문화 결혼식을 더 열지는 못했어요. 박선영 전 국회의원이 든든한 지원군이었는데, 다음해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마했어요. 그분만큼 단동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는 분이 없었어요.” 단동한국인회는 이후 다문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다. 매년 연말에 100여 명이 참석하는 다문화 행복 축제를 개최해 왔다. 한국 시부모를 모셔 오고, 자녀들도 데리고 왔다. 또한 한국인회는 아내

인 중국 여성들이 한국의 김치, 된장찌개를 만들 수 있도록 요리교실을 열었다. “1994년부터 단동에서 살고 있어요. 10명밖에 한국인이 없었던 시절이었죠.” 윤달생 회장은 수산물 무역을 했다. 회사명은 중방식품유한공사. 석재사업과 광산투자 등에도 뛰어 들었다. 단동에서 대규모 활어 양식장을 운영하기도 했다. “성게 알, 조기, 문어 등 북한 영해의 바다에서 잡히는 수산물을 한국에 팔았어요. 단동의 대형 냉장고가 북한 수산물로 가득 찼어요.” 지금은 연변 등 다른 곳에서도 수산물이 거래되지만 단동은 중국 동

북부 수산물의 집결지로 유명했다고 한다. 특히 한국식탁에 오른 왕문어의 인기가 대단했다. “한인들이 몸으로 부딪혀 가며 중국을 개척했어요. 얼마 전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방문했죠. 한인들도 한중관계가 개선되는 데 큰 역할을 했어요.” 하지만 단동의 한국인 수는 점차 줄고 있다. 2000년대 초반 남북관계가 가장 좋았을 때 5~6천 명에 이르렀지만 지금은 1천 명 이하로 줄어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단동=이석호 기자>

백종범 장백산 사장 “단동 어린이축구단 만들어요”

“국가대표 손흥민 선수 아버지와 축구를 함께 했어요. 강원도 정선 초등학교와 춘천 중·고등학교를 함께 다녔지요.” 백종범 장백산 사장을 만난 때는 7월14일 저녁이었다. 월드컵 독일-아르헨티나 결승이 이날 새벽 4시에 열려, 축구가 단동한인들의 화제였다. 이상할 정도로 단동한인들 중에는 강력한 우승 후보인 독일보다는 아르헨티나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가만히 그 얘기를 들어보니 독일이 준결승에서 브라질을 너무 크게 이겼기 때문이었다. 골을 넣어도 냉정하게 플레이를 하는 독일선수들. 크게 이겨도 침착하게 자신들의 플레

이를 하며 7-1로 브라질을 대파한 독일이 알밋다는 것이다. 항상 약자를 응원하는 한국인들이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단동 세관에서 가까운 음식점 장백산을 찾았다. “북한 평양에까지 장백산 식당이 소문나 있었어요. 단동에서 가장 큰 음식점을 운영하는 분이예요.” 이회행 단동한국인회장은 단동에 3개의 큰 식당을 갖고 있는 백종범 사장을 소개했다. 중국의 물품을 북한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꼭 거쳐야 하는 단동 세관 옆에 2개의 식당이 도로를 가운데 두고 마주보고 있고, 신시가지에 또 다른 식당이 있다고 한다. 백 사장은 젊었을 때 축

구를 했는데, 10년 전 조선족동포인 아내와 단동으로 와 식당을 차렸다고 했다. “북한사람들도 많이 찾아와요. 중국인들도 한식을 좋아해요.” 단동은 북한사람들이 1만 명이나 거주하는 곳이다. 한국인 숫자보다 10배나 많다. “이번 여름부터 어린이 축구교실을 열 계획이에요. 정기적으로 아이들에게 축구의 기본기도 가르치고, 같이 시합도 할 생각이예요.” 한인회에 재능봉사를 할 계획이라는 것이었다. 백종범 장백산 사장은 한국인회 운영위원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성인 축구팀 압록강 축구단도 이끌고 있다. <단동=이석호 기자>



‘심양한국주 추진위원장’ 맡은 박영관 심양태성복장 사장



중국에서 코리안 페스티벌인 한국주간 행사가 최초로 열렸던 곳이 바로 심양이었다. 2002년에 시작돼 지난해까지 12차례 열렸다. 이 사업을 처음 기획한 사람은 손성종 현 동북3성연합회 사무총장. 그가 초기에 3회 추진위원장을 맡았고, 나중수 신일알루미늄 사장 등이 추진위원장으로

일했다. 심양한국주간은 한국의 상품을 중국인들에게 알리고, 한중 문화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시작됐다. 그리고 조선족동포, 중국 현지인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를 만들고자 했다. 2000년대 초반에 비해 한국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면서, 예년보다 그 행사 규모가 축소된 것이 사실이지만, 수만명이 찾는 행사를 준비하는 것이 만만치 않은 일. 박영관 심양한국인회 수석 부회장이 2014년도 추진위원장으로 임명된 때는 지난 4월이었다. “4개월 간 정신이 없었습니다. 가장 힘든 점은 행사 진행 비용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돈으로 1억6천만의 예산이 필요했어요. 심양 한인들이 십시일반 이 행사를 지원해 주었어요.” 그는 심양태성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심양에서 스웨터를 만들어 유럽에 수출하는 회사다. 연매출 약 800만 달러에 직원이 80명에 이르는 중소기업. ZARA, TESCO,

시어스 등에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7월17일 오전, 심양 서탑이 보이는 한식당에서 그를 만났다. “심양은 동서남북에 불탑이 있어요. 서쪽에 있어 서탑이라고 불리죠.” 심양은 청나라의 누루하치가 수도로 삼았던 도시. 서탑은 누루하치의 아들인 황태극이 선양의 동서남북 네 곳에 세운 라마교 탑 중 하나다. 현지인들은 심양을 중국어로 보피(寶地) 즉 성스러운 지역이라고 부른다. 심

양에 있는 불탑의 힘으로 큰 자연피해가 없었다고 믿는다. “성남예총 단원 60여 명이 심양 서탑을 찾습니다. 김수희, 남보원, 엄용수 등 연예인들이 출연하는 행사도 진행됩니다.” 박영관 추진위원장은 올해 역시 한복패션쇼, 한중 예능공연, 연예인 축하공연 등 5일간 행사에서 다양한 문화공연이 진행된다”고 강조했다. <심양=이석호 기자>



칼럼



이종환
(월드코리아신문 발행인)

임진왜란을 중국에서는 뭐라 부를까?

서애 류성룡의 리더십... 한국지도자아카데미 개강식서 강조

임진왜란을 중국과 일본에서는 어떤 이름으로 부를까? 중국은 6.25를 항미원조(抗美援朝)전쟁이라고 부르니까, 이것도 항왜원조(抗倭援朝)전쟁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닐까?

한국지도자아카데미 제 28기 개강식에 갔다가 문득 이런 의문을 떠올렸다. 한국지도자아카데미는 김일주 원장이 국가관 있는 지도자 육성을 목표로 사재를 털어 진행하고 있는 사회리더십 교육 과정이다.

1년 과정으로 전반기 후반기로 갈라 각기 40~50명이 한 기수를 이루면서 이번에 28기째를 모집했다. 7월19일과 20일, 1박2일간 열린 28기 개강식 행사에는 27기생과 28기생 등 약 100명이 참여해, '한

국지도자아카데미'라는 이름에 걸맞게 리더십에 관한 내용의 강연들을 들었다.

첫 강사로 나온 송복 전 연세대 교수는 '나는 왜 류성룡(柳成龍)을 쓰는가'라는 제목으로 '징비록'을 남긴 서애 류성룡의 리더십을 소개했다. 이어 국민정신연구소장으로 있는 최상호 박사(교육학)가 '선진 국민정신 함양운동'을 타이틀로 선진 일류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국민정신 함양운동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강연했다.

그리고 이튿날 단국대 김정일 교수가 '리더십 모델의 통합적 관점과 교육개발 방향'을 주제로 강연했다. 리더십 연구에 대한 학계의 동향을 소개하는 내용이었다.

이 강연들을 들으면서 마지막 강사였던 김정일 교수한테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리더십은 어떤 종류의 리더십인지, 그리고 이를 구현한 역사적 인물은 누구라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했다. 그런데 다시 서애 류성룡 선생의 이름이 나왔던 것이다.

류성룡은 해안을 가진 인물이었다. 임진왜란 1년여 전에 종6품 육군 하급 장수이던 이순신을 해군사령관인 정3품

당상관 전라좌수사로 전격 발탁해 전쟁에 대비하게 한 게 대표적이다. 임진왜란 때는 전시 수상을 맡아 전쟁을 지휘하고 임금을 호송하며, 명나라의 지원군도 받아들여 조선왕조를 멸망의 위기에 서 구해낸 명재상이기도 했다.

당시 명나라 조정은 파병을 두고 의견이 분분했다. 결사반대하는 세력도 있었고, 조선을 지원하자는 세력도 있었다. 중국판 위키피디아인 바이두(www.baidu.com)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

"평양이 함락되면서 선조는 압록강을 건너 요동반도의 관존보로 건너와 명나라의 출병을 기다리고 있었다. 명나라로서는 조선의 급보가 생각 밖의 일이었다. 명나라측은 물었다. 귀국은 동방의 강국인데 어떻게 갑자기 왜적에게 함락됐는가? 귀국은 언제 어디에서 어떤 싸움이 있었고, 손실이 얼마나 되며, 사상이 얼마나 되지는 왜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는가? 혹 왜군과 싸고 명나라 군대를 조선으로 불러들여 섬멸시키려는 음모는 아닌가... 명나라는 요동에 머무는 선조가 진짜인지 확인하기 위해 몰래

화공을 보내 초상을 그려가기도 했다."

이런 어려움 끝에 명나라는 파병을 했지만, 결국 왕조는 망하고 만다. 요동의 이여송이 명나라 지원군을 이끌고 조선으로 향한 사이에 누르치기가 여진족을 모아 후금을 세우고, 이 후금이 결국 산해관을 넘어 명나라를 멸망시키고 청나라를 세운 것이다.

일본 역시 전쟁으로 피폐해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으면서 도쿠가와 막부로 바뀌고 만다. 조선왕조만 그 전쟁에서 살아남은 게 아이러니라고 할까.

이 임진왜란을 중국에서는 조선지역(朝鮮之役)으로 불렀다. 조선전쟁이란 뜻이다. 특히 만력제(萬曆帝)때 일어난 세 전쟁 가운데 조선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해서 '만력조선지역'이라고도 한다.

일본에서는 이를 가라고진(唐御陳)고려진(高麗陳)조선진(朝鮮陳)등으로 부르다가 명치유신을 전후해서는 '조선정벌', 그리고 2차대전후부터 전쟁당시의 천왕이름을 따서 임진왜란을 '분로쿠(文祿의 역(役)) 정유재란을 '케이쵸(慶長)의 역'으로 부르고 있다.

김봉준 그림편지



김봉준
(오랜미래신화미술관 관장·화가)

자연이 들어온 정원

새가 날아 왔습니다. 새가 날아와 내가 만든 조각 '기도하는 어머니' 머리 위에 앉았습니다. 페이스 북에 이 사진을 올렸더니 행운이 찾아올 것 같다고 댓글들을 달아 주었습니다. 오랜 옛 신화로 보아도 새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천신의 메신저를 상징하기에 길조로 보고 싶습니다. 나의 조각실은 숲 속에 자리하기에 자연에 들어간 집입니다. 그래서 숲에 사는 짐승들이 잘 들락날락합니다. 창틀이나 벽틈도 많아서 작은 새들은 충분히 무슨 소굴 정도로 알고 가끔 들어온답니다. 그런데 하필 기도하는 어머니 상의 머리 위에 앉으니 그냥 보기에도 아름답습니

다. 자연이 들어와 앉은 조형물이네요.

여기 산골로 와서 만드는 조각마다 이곳 자연을 닮고 있습니다. 요즘 만드는 조각들은 가마에서 구워 나오면 바로 팔팔에 놓고 사진을 찍어 놓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곳 자연과 어울리는 조각들을 만들었다는 보람에 즐겁습니다. 혼자 좋아서 신이 나고 혼자서도 흡족해 하는 이 조각가는 그래서 고독하지 않습니다. 나의 조각은 자연에 들어가 조각정원이 되어 즐겁습니다.

정원은 인류가 정착하며 농경생활을 시작하던 신석기시대부터 있어 온 인류 문화 유산입니다. 정주하는 집과 함께 마당을 가꾸었으니 마당의 꽃밭, 이곳을 사랑스러운 공간으로 가꾸었지요. 주변에서 꽃나무와 과실수도 가져다가 심고 풀꽃도 심고 기이하고 탐스러운 돌도 배치 놓고 연못도 가꾸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정원은 그 곳의 자연을 닮았습니다. "그가 먹는 것이 그 사람이다"는 인도 속담이 있듯이 그 종족이 만든 정원이 그들의 얼굴입니다. 그 종족의 세계관과 미의식이 그대로 투영되는 종족의 캔버스 같습니다. 해외여행을 다녀거든 그곳의 토종 정원을 관람하면 좋

습니다. 정원은 그 종족이 자연을 해석해 온 문화입니다.

한민족에게도 정원의 문화가 내려옵니다. 일본과 다르고 중국과도 다른 정원의 개성을 읽는 재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정원은 '자연이 들어온 정원'입니다. 자연이 들어와서 우리 가족과 씨족들과 노닐게 조성했습니다. 거기 사는 곳의 본래 자연을 삶의 터로 가꾸어 왔습니다. 그곳에서 채취한 돌과 그곳의 나무들과 화초들이 들어옵니다. 이들의 융합은 인간의 미적 태도 여하에 따라 다르겠지요. 우리민족의 정원은 자연으로 들어가고 자연이 정원으로 들어옵니다. 싱그러움 숨이 내 코와 가슴으로 들어 올 때처럼 자연은 나에게로 열려 있어 들락날락합니다. 문도 없고 담도 없는 열린 정원입니다. 인공을 최소화 하여 가공미를 절제하고 자연의 변화와 생리를 섬기는 미의식이 강합니다.

저는 이곳 자연에 20여 년을 살면서 집 짓기와 마당 조성하기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끔적이면 경비를 안 들이고 주변에 있는 돌과 나무와 꽃들, 그리고 나의 조각으로 꾸며 왔습니다. 이 한반도 땅은 유럽에 비해 잡목과 잡풀이 많아 번



▲(정원이 된 조각들) 도자조각들 2014년작 김봉준

잡해 보입니다만 그것은 이곳의 토양과 기후가 달라서입니다. 강우량이 많고 사계절이 뚜렷하고 토질이 노년기의 땅으로 퇴적토가 많아 수종도 아주 많습니다.

야생이 살아 숨 쉬는 정원을 보러 오실래요. 우리 마을 한 가운데는 숲을 그대로 보존하며 가꾼 '마을정원'이 내려옵니다. 우리는 이것을 당숲이라 불러 왔습니다. 신성한 숲이란 뜻입니다. 단군신화의 신단수, 부여의 소도, 신라의 계림 등이 다 이런 신성한 숲을 말하지요. 여기서 나라의 시조가 탄생하고 제사로 조상제를 하였습니다. 조상의 육신화이고 자연의 우주목이 당숲입니다. 당숲은 우리 겨레가 숲에 이름을 붙인 문화입니다. 당숲은 정원의 원조입니다.

우리마을 당숲도 근대주의 개발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도로포장으로 많이 훼손되었지만 그래도 300년 나이의 나무들이 아직도 즐비합니다. 제가 만든 신화미술관의 정원도 구경해 보세요. 이곳 산천을 닮았습니다. 자연에 들어간 조각이 오시는 님을 더욱 반길 겁니다.

제13차 세계한상대회

THE 13th WORLD KOREAN BUSINESS CONVENTION

2014. 9. 24(Wed) ~ 26(Fri) | 부산 BEXCO 제2전시장



글로벌 비즈니스 기회의 장!

제13차 세계한상대회가 9월 24일부터 3일간 부산광역시에서 열립니다.
전세계 한인 비즈니스맨을 위한 정보와 교류의 장인
세계한상대회에 지금 참여하세요!

함께가는한상 네트워크! 새시대 경제 도약을 준비하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온라인 사전 등록은 한상넷(hansang.net)에서 8월 10일까지

등록문의 세계한상대회 본부사무국 **전화** +82-2-3415-0158 **e-mail** registration@okf.or.kr



새시대 경제도약의 동반자,
한상네트워크!

Global New Market, Hansang Network!

주최 재외동포 경제단체
주관 재외동포재단, 부산광역시, 매일경제신문 • MBN
후원 외교부, 미래창조과학부, 법무부,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휴먼인러브의 가치, ‘홍익인간’ 이념과 같아”



인러브 // 김영후 휴먼인러브(Human in Love) 이사장

40대 초반, 그는 우리나라 굴지의 투자신탁회사에서 뛰쳐나왔다. 우연히 봉사활동 소모임에 참여했다가 시칠말로 ‘필이 꽃혀’ 재난구호 단체를 조직했다. 현재, 그가 몸담고 있는 단체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구호개발 NGO로 발전했다. ‘이웃사랑에는 국경과 민족이 없다’는 말이 떠오르게 하는 주인공, ‘휴먼인러브(Human in Love)’의 김영후(사진) 이사장을 만났다. 김 이사장은 “처음엔 가볍게 시작했지만 지금은 이게 나의 운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휴먼인러브’의 역사는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세계재난구호회’라는 이름으로 소방방재청 허가를 받아 공식적으로 활동을 개시했다. 인명구조 활동뿐만 아니라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봉사활동 등 열악한 환경에 놓인 이웃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병행했다. 특히 2010년 아이티 지진 때, 현지에 과감히 구조단을 파견하자 주요 언론이 이를 대서특필했다. 의도하지 않게 그의 이름과 소속단체가 국내외에 급속히 알려지는 계기가 됐다. 김 이사장은 아프리카 등 저개발 국가에 대한 지원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치기 위해 2011년 외교부로부터 ‘휴먼인러브’라는 법인설립을 허가받았다.

국내 4만 5,000여명의 정회원을 보유한 휴먼인러브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김영후 이사장은 국제구호개발 사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인류애’를 제시했다. 휴먼인러브라는 단체명이 이러한 정신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부연설명도 이어졌다.

김 이사장은 “인류애를 바탕으로 저개발 국가의 절대빈곤과 기아문제, 열악한 보건 및 교육환경을 개선해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은 예로부터 내려온 우리 민족의 홍익인간 이념과도 상통한다”고 강조했다. 인류의 공존과 번영, 모두가 살기 좋은 지구촌 만들기는 국경과 민족을 초월해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弘益人間)’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 휴먼인러브가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사

업들을 추려보니 교육지원 사업이 가장 먼저 눈에 띄었다. 빈곤국가 아이들을 위해 장학사업을 하고 있으며, 특히 아동도서 보급을 위해 동화책을 현지어로 번역·보급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현지 문화코드에 맞도록 한국작가들이 쓴 동화뿐만 아니라 현지 작가들이 집필한 동화도 제작·보급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라오스 아이들을 위해 라오스국립도서관과 현지 초등학교 2곳을 방문해 동화책 전달식을 갖기도 했다.

물론, 휴먼인러브의 지원 사업은 국내외를 가리지 않는다. ‘내꿈날내 꿈에 날개를 달다’는 서울 구로구·금천구·관악구·중랑구, 전남 목포시 등에 소재한 학교의 저소득층가정 학생들을 돕는 사업이다. 학비지원 외에도 대학생 멘토링을 통해 학습도 돕고 있다. 또, 정신지체 특수학교 재학생 중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40여개 가정에 생활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간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며 느낀 점으로 “결국 사람들이 변해야 세상도 변화한다”며,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을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미래세대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사업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김 이사장은 “빈곤의 악순환을 극복하기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미래사회의 희망이라 할 수 있는 어린이, 청소년들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지원이 더욱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즉, 차세대들이 인류애를 갖고 이웃사랑을 펼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휴먼인러브가 어린이 인성교육 및 봉사정신 교양 차원에서 하고 있는 ‘착한 백원 모으라’는 어른-아이들 간의 소통에도 기여하는 일석삼초 캠페인이다. 일단 지구촌 소외 이웃들을 위해 칭찬저금통을 손수 만든다. 그리고 선생님, 또는 부모님과 함께 인성에 관한 목표와 실천계획을 세운다.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실행표에

알록달록한 스티커를 붙이며, 착한 100원을 저금통에 넣는다. 모든 것을 완수한 뒤, 선생님, 친구들과 함께 소감을 발표한다.

이외에도 보다 내실있는 청소년 봉사활동을 위해 희망진로와도 부합하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했다. 언론인을 꿈꾸는 학생들을 위한 ‘청소년 기자단’, 외고학생들이 참여해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위해 도서를 번역하는 ‘글로벌 콘텐츠 봉사단(번역반)’, IT·소프트웨어 분야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을 위한 ‘SW코딩 감사양성 프로그램’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청소년 기자단 프로그램에서는 지역 빈곤계층 및 장애인 문제 등을 직접 취재하고, 다음(Daum)의 ‘희망해’나 네이버(Naver)의 ‘해피빈’ 등 온라인 모금사이트를 통해 직접 펀드레이징도 한다. 일상에서 소외이웃들에게 관심을 갖고 주도적으로 지원활동을 펼치는 과정에서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을 스스로 경험하게 하는 체험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아이티,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라오스, 르완다, 부룬디 등 7개 지역에 휴먼인러브 해외지부가 활동하고 있다. 세계 각 지역에 본부 직원들을 파견하는 것은 여건 상 힘든 게 사실. 김 이사장은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동포들이 휴먼인러브 해외지부를 맡아 본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교육지원 사업을 실행하고, 장학사업 등이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지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해주는 게 가장 좋은 대안이다”고 말했다. 요컨대, 휴먼인러브 해외지부 개설에 역량 있는 재외동포 지도자들의 참여를 원하고 있다.

국제구호개발 활동에 관심 있는 후배 활동가들을 위한 조언을 구하자 김 이사장은 한마디로 “절박함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자다가도 꿈속에서 헛소리할 지경이 돼야 한다”는 것. 그는 토요일에도 출근해 늦은 밤 퇴근하며, 초창기 2년 동안은 월급도 받지 않았다고 한다. 현재 휴먼인러브에는 30여명이 활동가들이 근무하고 있다. 그 중에 반 남짓은 모금팀이다. 그만큼 모금활동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다. 김 이사장 “무엇보다 건전한 기부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며, 그 필요조건으로 다음 아닌 ‘사랑’을 꼽았다. 바로 휴먼인러브(human in love).

(고영민 기자)



이승률 이사장 “남북한 모두를 위한 통일대박 돼야”

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 경기도 양평서 ‘제2회 한반도통일안보경제 워크숍’

북한·통일문제 연구자, 기업인, 언론인, 시민사회 인사 등 각계 전문가 6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남·북한 문화교류와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통일과 동북아 공동체 비전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동북아 국가 간의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사)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이사장 이승률)은 7월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경기도 양평 코바코 연수원에서 ‘제2회 한반도통일안보경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승률 이사장은 18일 열린 개회식에서 “한반도통일의 꿈과 동북아경제공동체 비전을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워크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평을 거꾸로 읽으면 평양이 된다”고 운을 뗀 이 이사장은 “북한강과 남한강이 합류하는 지역 이곳 양평에서 진행되는 워크숍이 동북아평화와 번영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고, 미래 한반도통일을 기획하는 ‘통일 캠프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정부 주도로 진행되는 거시적인 통

일담론과 관련정책도 의미 있지만, 작은 것부터 조금씩 실천하며 남북 간에 공통분모를 찾고 함께 나누는 것이야말로 통일의 길로 가는 지름길”이라며, “이틀 동안 진행되는 이번 워크숍에서 머리를 맞대고 보다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통일정책을 찾아보자”고 당부했다.

특히, 이 이사장은 워크숍 첫날 진행된 각 분과별 토론회를 종합 정리하는 차원에서 “통일대박의 수혜대상에는 북한주민들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그래야만 통일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단지, 대한민국만 잘 살기 위한 통일대박이 아닌 남북한 모든 구성원이 함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통일대박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고려인, 조선족, 재일동포들에게 각별한 애정을 갖고 각종 지원 사업을 펼쳐온 도재영 동북아평화연대 이사장은 “인도적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통일의 시작”이라며, “결코 식지 않는 끊임없는 열정과 헌신으로 통일의 그날을 위해 우리 다함께 가자”고 말했다.

개회식에 이어 이영일 한중문화협회 회

장이 ‘통일한국을 위한 창조적 리더십’이란 주제로 기초강연을 펼쳤고, ‘통일대박 모의실험’이란 대주제 아래 △통일정책 △인프라구축 △산업경제 △인력양성 △언론 및 법제도 △국제협력 등 6개 분과로 나눠 모든 참석자들이 토의에 참여하고 분과별 발표 및 전체토론을 진행했다.

장대성 강릉영동대 전 총장은 인력양성 분과의 논의결과를 발표하며 “북한주민들이 자본주의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자본주의 교육의 접점이라 할 수 있는 ‘주식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이색적인 주장을 펼쳤다. 반면, 탈북자 출신으로 언론·법제도 분과에 참여한 장길 씨는 “돈맛을 알기 전에 먼저 자유의 맛을 알아야 한다”며, “북한 주민들이 외부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이고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산업경제 분과에서는 “인터넷 개방 수준이 북한 개방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곧바로 이어진 토론회시간에 김병진 연변과학기술대학 교



수는 “전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는 한민족 디아스포라 중에 각 분야에서 우뚝 선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을 남북관계 개선 및 통일 도우미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종수 글로벌경제평화연구소 이사장은 “남북통일은 과학적으로 풀 수 없는 문제”라며, “가장 중요한 ‘열정’이 없다면 통일은 결코 오지 않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분과별 토의 외에도 이번 워크숍에서는 주제별 특강으로 △마음경영(황을문 서린바이오사이언스 회장) △통일한반도를 향한 외교안보전략(정경영 동아시아국제전략연구소장) △2014년 북한 실상과 북중관계(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 △일본의 문화적 정체성과 사상(마스부치 게이이치 일한문화교류협회장) 등이 이틀에 걸쳐 진행됐고, 참여자들이 서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며 친목을 다지는 시간도 가졌다.

〈고영민 기자〉



‘핸드메이드코리아 페어 2014’ 삼성동 코엑스서 열려

손으로 창작 작업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

Real Open Art Fair를 컨셉트로 하는 ‘핸드메이드코리아페어(HMKF)’가 7월10일부터 13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B홀에서 열렸다.

(주)핸드아티와 레몬트리 주최, 한국제지 협찬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에서는 생활용품 및 액세서리, 미술품, 인테리어 소품 등 손으로 만들어지는 다양한 디자인의 제품들을 만날 수 있었다. 주제관, 특별(홍보)관, 기획관, 해외관, 체험클래스 등으로 행사장이 구성됐다.

주제관에선 올해는 ‘자투리의 재발견’이라는 타이틀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숙명여대 박물관 퀼트 전문가와

정 김미식 주임교수와 학생들, 서울시립미술관 퀼트 반 수강생들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특별관에는 역대 홍보대사들을 초청해 홍보부스를 마련했다. 2012년 한복 디자이너 이효재, 2013년 도예가 김성진 작가(배우 김성령의 언니) 그리고 2014년 배우 송창의와 그의 부친인 송대현 작가가 작품을 소개했다. 송 작가는 “5년 전 위암초기 판정을 받고, 수술 후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 4년 전부터 힐링 차원에서 연필화를 시작했다”라며, HMKF를 통해 자신의 작품을 전시하게 되어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게 생각

한다고 말했다.

기획관에선 유명 토이(toy) 작가들의 다양한 아트 토이 특별전을 볼 수 있었다. 그 외에 다수의 핸드메이드제품 전시 판매를 겸한 체험코너 등이 마련됐다.

글로벌 전시관에선 일본, 중국 및 해외 작가 70여 명의 다양한 작품들도 만나 볼 수 있었다. 또한 매해 국내외 작가들을 초대해서 행사기간 4일 동안 8m 긴 캔버스에 작품을 완성시키는 퍼포먼스 형태의 ‘라이브페인팅’도 HMKF의 볼거리였다.

〈현혜경 기자〉





2014 재외동포재단 세계한글학교 교사연수 참가자 인터뷰

“영문판 한국역사교재 만들겁니다”



최미영
신임 NAKS 회장

“한국에서는 영어교사였는데, 미국에 와서 졸지에 비전공 역사교사가 됐지요.” 최미영 다솜한글학교 교장이 7월5일 미국 인디애나폴리스 JW메리에트호텔에서 열린 제32차 학술대회 및 총회에서 NAKS(재미한국학교협의회)의 신임회장으로 선출됐다.

그가 교장으로 있는 다솜한글학교에는 70명의 아이들이 10명의 교사들에게 공부한다. 한국의 대신중학교에서 4년 간 영어교사로 일한 그는 86년 남편과 함께 유학길에 올랐다가 이제는 영어가 아닌 한국사를 가르치는 역사교사가 됐다.

“한글학교에서 활동한지가 만 10년 됐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아이들한테 한국어를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한 것인데 여기까지 오게 됐네요.” 그는 2009년, ‘요코이야기’ 퇴출 서명 운동을 벌였다.

“캘리포니아는 한국과 많은 교류를 하고 가깝게 지내는 곳이고, 한국인도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도 아이들은 한국 전쟁과 식민지에 관한 것밖에 배우지 않았어요.”

그는 아이들에게 한국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교육시켜야겠다고 생각했다. 문제는 아이들을 교육할 교재가 없다는 것. 그래서 이들은 2010년 ‘한국을 알자’와 2011년 ‘한국을 찾아라’라는 한국사 교재를 만들었다. 이 교재는 현재 미주지역 한글학교를 넘어 40개국, 300여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교재로 쓰인다.

이번 5월에는 맞춤형 교재로 ‘한국역사문화 표준과정’이라는 책을 펴냈다. 방대한 한국사 중 재외동포 학생들이 꼭 배워야 할 내용을 주제별로 묶었다. 한국의 음식, 옷, 집, 말 등 문화부분과 고대사부터 근현대사에 이르기까지 역사 전반을 다뤘다. 그 중에서도 학생들이 더 관심있어 하는 근현대사에 더욱 초점을 맞췄다. 이 책들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영어로 된 한국역사교재를 만드는 것이 최 교장의 꿈이라고 했다.

“한국사를 공부할 수 있는 교재를 영어로 만들어서 미국학교에도 보급하고, 선교사분들에게도 보내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쓸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이호근 기자〉

“한국 학생 수보다 교사가 더 많지요”



최상운 교사
오만 무스카티한글학교

“오만에는 한글학교가 하나 있어요. 유치부, 초등, 중등 다 합쳐서 아이들은 3명뿐이지요.”

재외한글학교 교사 초청연수를 위해 오만에서 날아온 최상운 교사의 말이다.

오만은 중동에 있지만 산도 있고, 물도 풍부하며 자연이 좋아 짧은 휴식을 지내기에 좋은 나라다. 산유국으로 외국인들이 와서 일을 하지 않으면 경제가 돌아가기 힘들기 때문에 외국인들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이 잘 되어 있고 안전하다. 이런 이유에서 오만에는 많은 외국 기업이 들어와 있다.

“두바이나 인근의 나라에는 입시학

원 같은 한국학원이 있어 그곳에 다니지만 오만에는 한국학원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오만에 있는 동안 집중적으로 영어를 하고, 방학을 이용해 한국에 가서 3개월을 집중적으로 학원에 다니면서 한국 수업을 병행하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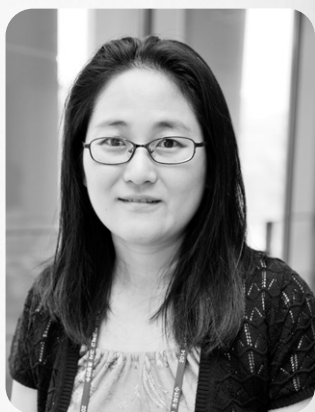
한글학교에서는 현지 아랍인들에게도 한글을 가르친다. 처음 최 교사 부부가 오만으로 건너간 것은 2007년. 당시 오만에는 12명의 한국 아이들이 있었지만 한글학교는 없었다. 한글학교의 필요성을 느낀 대사관에서 한글학교 설립을 주도했지만 짧은 기간 머무르는 주재원 중 교사를 찾기는 힘들었다.

현지에서 사업할 생각으로 이주한 이들 부부가 교사로 신청했고, 결국 2009년 한글학교가 세워졌다.

최 교사는 “외국인들을 처음 받기 시작한 해부터 지금까지 항상 현지 학생들이 더 많다”고 했다. 한류의 영향인지 최근에는 요르단이나 필리핀 등 제 3국의 학생들도 몰려든단다. 제 3국인들은 한국 기업의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지만 오만 사람들은 순수하게 한국 드라마나 K-POP을 접하고 한국어를 배우려 한다고 덧붙였다.

〈이호근 기자〉

“우크라이나 내전 때문에 걱정입니다”



홍재현 교사
우크라이나 ‘생명의길 한글학교’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 소재한 ‘생명의길 한글학교’에서 우크라이나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홍재현 교사는 기자를 만나자마자 “우크라이나 내전 때문에 걱정이 태산이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정부군과 분리주의 반군과의 교전이 격화돼 사실상 내전으로 번지고 있고, 무고한 민간인 희생도 늘고 있다고 한다.

한글학교 중급반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홍 교사의 스마트폰 메시지 창에는 현지의 혼란한 정세가 고스란히 담긴 사진이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있었다. 간호학을 공부하고 병원에서 야간 근무 실습을 하고 있는 현지인 제자 ‘디아나’가 홍 교사에게 부상당한 군인들을 비롯해 긴박한 현지 상황을 스

마트폰으로 찍어 카카오톡으로 계속 보내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에 홍 교사는 한글학교 교사 초청 연수 중 촬영한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의 다양하고 재미난 장면들을 전송한다. 한글학교 교사들이 묵고 있는 기숙사와 정감 넘치는 장독대 풍경, 세계 각국에서 온 한글학교 교사들의 다양한 표정, 심지어 화장실까지 고스란히 찍어 제자들에게 사진과 함께 격려 메시지를 보냈다.

한글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우크라이나 현지인들이며, 극히 일부만 고려인들과 교민 자녀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고 한다. 홍 교사는 “K-Pop 덕분에 학생들이 많이 늘어 좋아했는데, 분리·독립을 둘러

싼 무력충돌 사태로 인해 학생들이 대폭 줄어들어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말했다.

홍 교사는 또한 “K-Pop 노래가사를 들고 와서 가르쳐달라고 조를 정도로 학생들 모두가 K-Pop를 매우 좋아한다”며,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문화에 대한 호기심도 많고, 한국에도 무척이나 오고 싶어 한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보다 6배 이상 큰 면적으로 유럽과 중앙아시아의 경계에 걸쳐 있는 우크라이나와 대한민국 간의 교류활동에 있어 한국어·한국문화에 대한 애정이 각별한 현지 젊은이들을 민간 공공외교의 훌륭한 일꾼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홍재현 교사의 의견이다.

〈고영민 기자〉

김우재 회장 “의지가 운명을 창조한다!”

제12기 차세대무역스쿨 모국방문교육에서 기조강연



“어느 분야이든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들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강력한 의지입니다. 반드시 할 수 있다는 의지가 결국 운명도 창조합니다.”

김우재 세계한인무역협회(World-OKTA) 회장은 7월16일 오후 경기도 양평 코바코연수원에서 개최된 제12기 차세대무역스쿨 모국방문교육 입학식에서 기조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강연에서 김 회장은 성공한 자들의 일반적인 패턴들을 나열하며, 차세대들이 투철한 신념만 있다면 눈앞에 놓인 난관들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자서전 ‘인도네시아에 핀 무궁화’를 차세대들에게 소개하며 그 동안 겪어왔던 사업 스토리를 솔직 담백하게 풀어냈다. 70년대 후반 원목개발사업

에 뛰어들었다가 무일푼으로 전략한 경험, 부부 간의 협력을 통해 절망을 이겨내고 인도네시아 정글을 뚫고 비행기로 김치를 나르던 일 등을 회고했다.

그는 “해외에서 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덕목 중 하나는 현지인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현지어에 능통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혼자서만 잘 먹고 잘사는 마인드가 아닌 현지인들과 함께 나누고 소통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994년 경제적 도탄에 빠진 인도네시아에서 대대적인 폭동이 일어나 화교 등 외국상인들에게 테러가 무차별 자행될 때, 김 회장의 사업장은 무사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현지인들에게 보호를 받았다. 김 회장은 “이는 그 동안 지역민들과 함께 나누는 과정 속에서 현지에 나만의 베이스(BASE, 기반)를 구축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 최대 식품 수입허가 보유 업체인 무궁화 유통(PT. KOIN BUMI)은

5,500만 달러 이상의 연매출(2013년 기준)에 320여명이 넘는 직원과 6개의 직영점을 보유하고 있다. 김 회장은 “남과 더불어 살겠다는 마음을 가진 자는 얼굴 빛도 달라진다”며, “함께 나눌 때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참석한 해외 청년기업인들을 위한 조언으로 투철한 신념과 의지, 지속적인 건강관리, 같은 길을 함께 오래 갈 수 있는 인생의 동반자, 외국어실력, 융통성, 전문성, 봉사정신, 친화력 등을 제시했다. 특히 해외에서 자수성가한 사업가들의 특성들을 말하며, ‘자기브랜드’를 갖고 사업에 임할 것도 주문했다.

김우재 회장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의지를 끝까지 잃지 않는다면 운명을 개척하며 자신의 꿈을 반드시 이룰 수 있다”며, 보다 능동적인 사고와 용기 있는 행동을 세계 무대에서 펼칠 것을 차세대들에게 재차 당부했다.

(고영민 기자)

월드코리안리더스



박기출 전 월드옥타 수석부회장이 월드옥타 뉴저지 지회가 개최하는 2014년 미주경제인 대회 참석 차 7월9일 뉴욕한인회를 방문했다. 박 전 수석은 민승기 뉴욕한인회장과 한인경제 및 동포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해 환담을 나눴다고 뉴욕한인회는 밝혔다.



이수잔 민주평통시애틀협의회회장이 7월23일 미국 시애틀 라마다텔에서 ‘2014 해외순회 통일교육 및 시애틀협의회 사업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 윤미량 통일교육위원장은 ‘한반도 통일시대를 위한 준비와 과제’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고 시애틀협의회는 밝혔다.



주기병 캄보디아 시엠립한인회장이 제6대 한인회장으로 연임했다. 6대 한인회장 취임식은 9월27일 5시 소카라이호텔에서 시엠립 전 한인 동포들과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취임식을 겸해 한인동포 한마당 큰잔치가 실시된다.



최미자 재미수필가가 7월11일 미국 샌디에고 한인연합감리교회에서 북사인회를 가졌다. 그는 최근 수필집 ‘날아라 부겐빌리아’를 발간했다. 북사인회를 통해 얻은 수익금을 한미노인회 건축기금에 보탬 계획이다.



조경구 플로리다 한인회연합회장이 9월1일 미국 플로리다 잭슨빌에서 제28회 플로리다 한인연합 체육대회를 개최한다. 연합회는 한인들의 화합과 발전을 도모하고, 스포츠를 통해 한인 1~2세대 간의 건강한 관계 증진을 위해 매년 연합 체육대회를 개최해 왔다.



고정미 오세아니아한글학교협의회회장이 10월2일부터 4일까지 뉴질랜드 로투루아에서 오세아니아 한글학교 교사연수를 실시한다. 150여 한글학교 교사들이 참여하는 연수에서는 한국어 지도법, 다양한 한국문화를 활용한 수업방안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현지인터뷰

강호성 인도네시아한인상공회의소 부회장

한인사회 차세대 리더... 신발 금형 공장 운영



왼쪽부터 승은호 아시아총연 회장과 강호성 인도네시아한인상공회의소 부회장

“신발을 제조하는데는 금형(몰드)이 필요해요. 그 몰드를 공급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대단한 회사입니다. 인도네시아한인사회의 새로운 세대 리더이기도 합니다.”

아시아총연 총회의 브레이크 타임에 승은호 회장이 이렇게 말하며 강호성 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 부회장을 소개했다. 강호성 부회장은 인도네시아의 크고 작은 신발 공장에 신발 몰드를 공급하고 있다고 했다.

부산에서 몰드 사업을 하다 18년 전 인도네시아로 왔다는 강 부회장은 인도네시아의 30개 신발제조업체에 몰드를 공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몰드는 고무나 스틸, 알루미늄으로 성형한 모형입니다. 신발을 만드는 본이지요.” 공장 직원수는 350명. 인도네시아의 한국계 신발제조회사는 물론 대만계와 인도네시아 로컬 공장에도 몰드는 공급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 대만: 로컬업체의 비율이 30: 40: 30 정도 됩니다. 대만 업체가 많은 편이지요.” 그는 신발 제조에는 금형이 많이 들어간다면서 신발 몰드가 생산량의 90%를 차지하며, 그 외에도 오토바이헬멧 및 전자제품 금형도 제작한다고 밝혔다. (사카르타=이종환 기자)

아빠 허리도
아들 무릎도
참포도나무병원



이제 척추도! 내시경 치료로 건강해지세요!

디스크·협착증! 내시경으로 보고 레이저로 치료한다!!

척추질환 치료, 왜 망설이세요?

- ✓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저려 쉬었다 가야 하는 환자분.
- ✓ 허리디스크를 동반한 중증의 척추관협착증 환자분.
- ✓ 고령에 고혈압, 당뇨로 척추질환 치료를 고민하는 환자분.
- ✓ 이미 수술까지 받았으나 여전히 통증이 남아 있는 환자분.

수술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가요?

수술... 그리고 절개와 전신마취에 대한 두려움? 하지만 척추질환, 꼭 수술해야 할까요? 요즘은 의학기술의 발달로 척추질환도 직경 1~2mm의 내시경을 이용해 직접 눈으로 보면서 레이저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바로 꼬리뼈내시경레이저 시술입니다.

비수술로 디스크와 협착증을 한번에!

꼬리뼈내시경레이저 시술은 꼬리뼈를 통해 내시경레이저카테터(가는 관)를 척추의 통증 부위에 삽입, 내시경을 이용해 신경이 유착된 부위를 찾고 레이저로 통증의 원인물질을 제거해 좁아진 척추관을 확장시켜 좁은 물론 약물로 염증을 치료해줍니다.

레이저를 사용하기 때문에 염증을 제거 하는 영역을 확대할 수 있으며 신경근 주위의 유착까지 제거 할 수 있고 디스크와 인대의 크기까지 줄여 줄 수 있습니다.

신경이나 관절을 많이 쓰다 보면 신경과 관절이 손상되면서 염증물질이 나오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찌꺼기(유착)로 남아 척수신경과 척추관이 들러붙게 되면서 만성적인 허리통증과 다리가 저리고 시린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디스크가 튀어나온 정도와 신경관이 좁아진 정도도 중요하지만 신경 주변의 염증과 유착을 어떻게 잘 조절하고 제거해주는냐 역시 척추질환 치료의 중요한 관건입니다.

꼬리뼈내시경레이저 시술은 디스크와 협착증 뿐만 아니라 수술 후 재발하여 심한 유착으로 재수술이 불가능한 경우는 물론 내시경으로

직접 보면서 통증의 원인을 찾고 치료하기 때문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만성요통이나 수술 후 지속 되는 통증에도 적용 가능한 시술법입니다.

짧은 시술! 빠른 회복!

시술은 국소마취만으로 이루어지고 비절개로 수혈도 필요 없고 회복시 통증도 적으며 흉터 또한 거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혈압이나 당뇨, 심장질환 등 각종 만성질환 또는 고령으로 인해 수술이 불가능한 환자분도 시술이 가능합니다.

특히 20~30분 정도의 짧은 시술 후에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1~2시간 정도 안정을 취한 후 일반적인 일상생활로의 복귀도 가능해 수술치료를 꺼리거나 수술이 불가능해 고통을 참아야 했던 환자 분들의 부담과 고민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단, 간혹 재발이나 감염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으므로 의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시술은 내시경을 통해 직접 보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밀한 진단과 치료가 가능하고 국소마취 하에 진행되므로 의사와 환자가 서로 대화하며 편안하게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체크해가며 이루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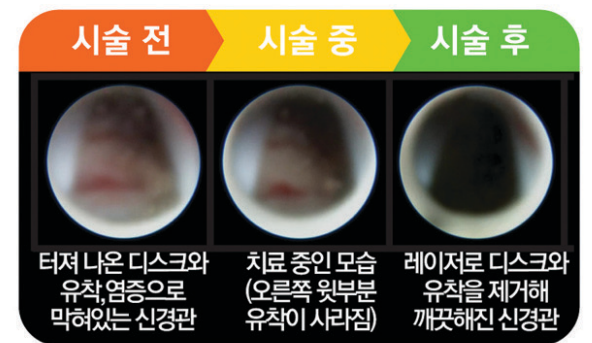
참포도나무병원은 또 아침 컨퍼런스를 통해 시술할 환자분들의 증상과 연령, 병변에 따라서 어떤 치료법이 적합한 치료가 될 것인가를 회의하고 결정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각 진료과 원장들의 풍부한 시술경험과 노하우를 서로 공유하고 토론함으로써 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기진단과 치료가 중요합니다.

흔히 디스크나 협착증을 진단받게 되면 누구나 수술에 대한 두려움이 앞서게 마련 이죠. 그러나 실제로 전체 척추질환 환자 중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드뭅니다. 팔·다리의 마비나 대·소변조절 장애 등과 같은 증상이 동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비수술 치료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증이 있을 때는 무조건 참기 보다 병원을 찾아 정밀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극적인 치료의지를 가지고 치료에 임할수록 조기진단과 치료를 통해 더 좋은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참지 마시고 고질적인 허리통증을 겪고 있다면 지금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꼬리뼈내시경레이저 시술 사례>



척추·관절의 참좋은친구
참포도나무병원
CHAM PODONAMU HOSPITAL

| 양재역 8번 출구 / 지하철 3호선·신분당선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0-7
| www.champodonamu.com

문 · 의 · 및 · 예 · 약
1588-0831

Oacle 오라클 피부과의원

국내 36개 지점 70여명의 의료진이 정성을 다해 진료하며
효과적인 치료 노하우 공유로 피부과 체계화와 표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압구정점
주영현 원장

일산점
최정철 원장

서울대입구점
최희창 원장

압구정점
박제영 원장

인천역점
정유석 원장

송파오금역점
김성한 원장

분당점
김성권 원장

화곡역점
김완수 원장

성남종합시장점
정세훈 원장

부천중동점
손영호 원장

강남점
임종현 원장

압구정점
김희정 원장

압구정점
노영우 원장



국내 36개 지점

인천 검단점 032-566-4114 | 남양주 장현점 032-571-0575
인천 구월점 032-434-5311 | 분당 서현점 031-707-4975
부천 중동점 032-321-4370 | 수원 인계점 031-224-5727
성남 종합시장점 031-745-5575 | 일산점 031-932-5757
오산역점 031-374-0064

대전 둔산점 042-488-8975 | 대전 세이점 042-533-5575
대전 테크노점 042-932-8275 | 공주 산성점 041-856-5575
천안 신부점 041-569-3355 | 청주 북문로점 043-253-5559
서산점 041-666-6600

오라클아름다운피부과의원 (전주점) 063-274-0000



압구정점 02-544-2777 | 강남점 02-535-8055
강변점 02-343-2077 | 동대문점 02-2244-7575
서울대입구점 02-871-8301 | 인천역점 02-416-2750
송파오금점 02-431-6789 | 서초점 02-522-3939
연신내점 02-352-2100 | 화곡역점 02-2605-1175
신촌점 02-322-2009 | 대치점 02-501-4818
노원점 02-930-1500 | 양재점 02-553-4700
여의도점 02-761-1010

대구 죽전점 053-522-7791 | 대구 중앙점 053-426-5575
부산 서면점 051-802-8759 | 창원 상남점 055-286-1006

Oacle 오라클 피부과의원

압구정점 02-544-2777
3호선 압구정역 3번 출구 30m KT 뒷편
미승빌딩 4층

아! 대한민국 68



김정남

〈본지 고문, 전 청와대 사회교육문화수석〉

적어도 동양의 차 문화는 아무래도 불교와 깊은 관련이 있다. 불가에서는 일찍부터 부처님께 공양(供養)으로 차를 올렸다. 공양이란, 부처님에 대한 '존경과 숭배'를 나타낸다. 불교의 계문(戒文)에는 공양을 '봉사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고, 「화엄경」에서는 그 의미를 더 확대해 "모든 것을 바치고 회향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한국에는 차가 언제 어떻게 전래되었을까? 「삼국유사」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 "두 태자(정신태자 보질도 寶叱徒와 그의 아우 효명태자)는 나란히 예배하고 늘 이른 아침, 우통수(于洞水)를 길어다 차를 달여 (오대산) 일만진신 문수보살께 차를 공양하였다"(권 3, 명주 오대산 보질도 태자 전기)

우통수는 강원도 태백의 검룡소와 함께 한강의 발원지로 일컫는 그 우통수(于洞水)의 물로 보이는데, 이는 차를 달이는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는 것이다. 차를 공양물로 사용한 두 사람, 즉 보질도와 효명태자는 7세기말 8세기초의 인물로, 이때 이미 불가에서 차 문화가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보다 더 구체적인 기록 역시 「삼국유사」에 보인다. "경덕왕 24년(764년) 3월 3일, 왕이 귀정문(歸正門) 누각에 남시어 좌우에게 이르기를 '누가 위엄있는 스님을 모셔올 수 있겠느냐' 했다. ... 한 승려가 납의를 입고 앵통(櫻筒, 다구를

담는 통)을 지고 남쪽에서 왔다. 왕이 '그대는 누구인가' 라고 하자 승려는 '총담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저는 늘 삼월 삼일과 구월 구일에 차를 달여 남산 삼화령의 미륵세존께 공양하는데, 지금 차를 올리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라고 말했다. 왕이 '나에게도 차를 한 잔 줄 수 있는가' 라고 하니, 승려가 곧 차를 달여 올렸다. 차의 향과 맛이 특이했고, 찻잔에는 기이한 향기가 진동했다"

총담이 다구가 든 앵통을 지고 납의를 입었다는 것으로 보아 그는 선종(禪宗)의 수행승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당시 당으로 들어가 새로운 수행법을 익혔던 사람은 대개가 선종이었다. 대개는 마조(馬祖 709~788)의 문하에서 수행했다. 마조계의 선사상(禪思想)은 화엄과 상통하면서도 관념적인 교학(敎學)과 허식을 부정하는 쪽이었다. 선종 수행승은 차를 부처님께 올리는 일을 수행의 일과로 보고, 빠뜨리지 않았다.

당시 차는 귀한 것이었다. 당에서 완

품을 수행승들이 가져왔기 때문이었다. 신라에서의 차 생산은 9세기께 이루어진다. 흥덕왕 3년, 대렴(大廉)이 당에서 차를 가져와 지리산에 심으면서 한국적 차 문화가 성행하였다. 고려시대에는 음다(飮茶)의 풍(風)이 널리 확산되었고, 연등회, 팔관회 등 국가의 주요 행사에도 진다의식(進茶儀式)이 행해졌다.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전통이 불교와 함께 쇠퇴하더니, 후기에 와서 초의(草衣) 등 다승(茶僧)과 다산 정약용, 추사 김정희 등이 그 명맥을 이어 동다송(東茶頌), 걸명소(乞茗疏) 등의 작품을 남겼다. 추사가 초의에게 이런 시를 써 보냈다.

정좌처다반향초(靜坐處茶半香初) 고요히 앉은 자리엔 차가 절반 줄어도 향기는 여전하고

묘용시수류화개(妙用時水流花開) 신묘한 작용이 일 땐 물이 흐르고 꽃이 피어나누나

한국의 차문화

삼강만평(三江漫評) 49



정인갑

〈전 북경 청화대 교수〉

얼마 전 모 TV에 인센티브 투어로 한국에 온 1천명의 중국 관광객이 한복을 입고 좋아하는 장면이 방송됐다. 한류에 도취되어 왔으며 한복도 한류의 한 내용이라는 의미를 피력했다. 문화유산의 종주국에 관한 재미나는 이야기꺼리라는 생각이 들어 본 문장을 써본다.

일본인이 편찬한 <한화대사전>의 맨 뒤에 여러 페이지의 사진과 그림이 있다. 거기에 중국 한나라 때의 복장이 수록돼 있는데 우리 한복과 매우 비슷하였다. 무슨 영문인지 그때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필자는 은퇴 후 중국 하남성 남양시 남양사범대학에서 1년간 초빙교수로 있

은 적이 있다. 사범대학은 와룡가에 있으며 동쪽으로 약 500미터 떨어진데 와룡공원이 있다. 바로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량이 출산하기 전에 '와룡선생'으로 불리며 있던 곳이라고 하여 나도 이제는 은퇴했으니 이곳에서 은거생활을 한다는 감이 들어 별다른 심정이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뜻 깊은 점은 그곳의 한화석 전람관을 본 것이다. 화석은 문짝만한 돌 판에 그림을 조각한 것이다. 호족 가문의 사람이 죽을 때 같이 매장했던 화석을 무덤으로부터 발굴하여 전람관에 집중시켜 놓았다. 동한은 중국 역사상 호족 지주계급의 번성기이며 전국의 호족이 주로 남양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중국 화석의 80% 이상이 남양에 있다고 한다.

화석에 나타난 복장은 옷이 무릎 밑까지 드리웠고 옷깃은 왼쪽 겨드랑이 부근에 형성고름을 매는 것으로 연결된다. 우리 한복과 거의 같다. 당연 문화적으로 훨씬 선진적인 중국의 복장이 한반도에 파급되었을 것이지 벽지 한반도의 복장이 중국으로 전파되었을 리는 만무하다.

한평제가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한사군을 세워서부터 서진 왕조가 멸망할 때까지 317년간 한반도의 대부분지역(북부는 중국의 식민지였다. 지금 한국

인이 선진국에 가서 며칠만 관광하고도 그 나라의 옷을 사 입고 돌아와 우쭐대는데 317년간 중국의 식민지로 있던 한반도가 중국식 복장을 배워 입지 않았을 리 만무하다.

그 후 중국의 옷은 길이가 점점 짧아지고 옷깃의 연결 부위가 옆으로부터 가운데로 옮겨지며 단추로 고름을 대체했다. 중국의 이런 변화는 북위(5~6세기) 때 완성됐다. 그러나 한복은 2,000년 전의 양식을 기본상 보존하며 끊임없이 더 예쁘고 세련되게 발전시켰다. 그러므로 한복은 한국의 복장이다. 말하자면 중국의 유산이 한국의 유산으로 변한 셈이다.

한국의 유산이 중국의 유산으로 변한 것도 있다. 우황청심환이 그의 전형적인 예이다. 우황청심환은 한국 동양의 약이었으며 중국에는 본래 없었다. 연암 박지원의 <열하일기>를 보면 알다시피 그때 조선의 사절단이 중국에 가면 중국인들이 한국의 우황청심환을 선물로 받으려고 갖은 애를 썼다.

후에 무슨 영문인지 한국의 우황청심환이 없어졌다. 1980~90연대에 세계 각국의 우리 동포와 한국인들이 중국의 우황청심환을 얼마나 사갔는지 모른다. 후에 한국에서 새로이 우황청심환을 제조하기 시작했는데 원래 이름을 중국에

빼앗겼으므로 부득불 '우황청심원'이라 이름 지었다. 한국의 문화유산 우황청심환은 완전히 중국의 문화유산으로 돼버렸다.

지금 중국 티베트인이 머리에 쓰는 삐딱하게 생긴 털모자는 본래 영국 군인의 모자였다고 한다. 몇 백년 전 영국군의 한 개 소부대가 인도로부터 티베트에 쳐들어왔다가 반항에 부딪쳐 철수할 때 버리고 간 모자였다. 그것을 티베트인이 주워 썼으며 또한 자체로 만들어 지금까지 써 왔다고 사회학 학자는 고증해냈다.

민족은 역사의 범주에 속하므로 특정한 역사시기에 예측된다. 1400년 전에 당나라에 잡혀간 고구려인 20만 명이 지금은 200만 명쯤으로 불었는 것이다. 1636년 병자호란 때 중국으로 잡혀간 조선인 60만 명이 절반쯤 돌아왔다고 해도 지금은 500만 명쯤으로 불었는 것이다. 이 7백만 명은 당연 지금은 중국인이다.

문화유산 역시 역사의 범주에 속하며 한 역사시기에는 A국 A민족의 유산이 다가 다른 한 역사시기에는 B국 B민족의 유산으로 전이될 수 있다. 문화유산의 종주국이 이렇게 변한 예가 인류 역사상 수없이 많은 것이라 추측된다.

문화유산 종주국은 변할 수 있다